

국민 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정부대표전화 110



부패신고 1398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A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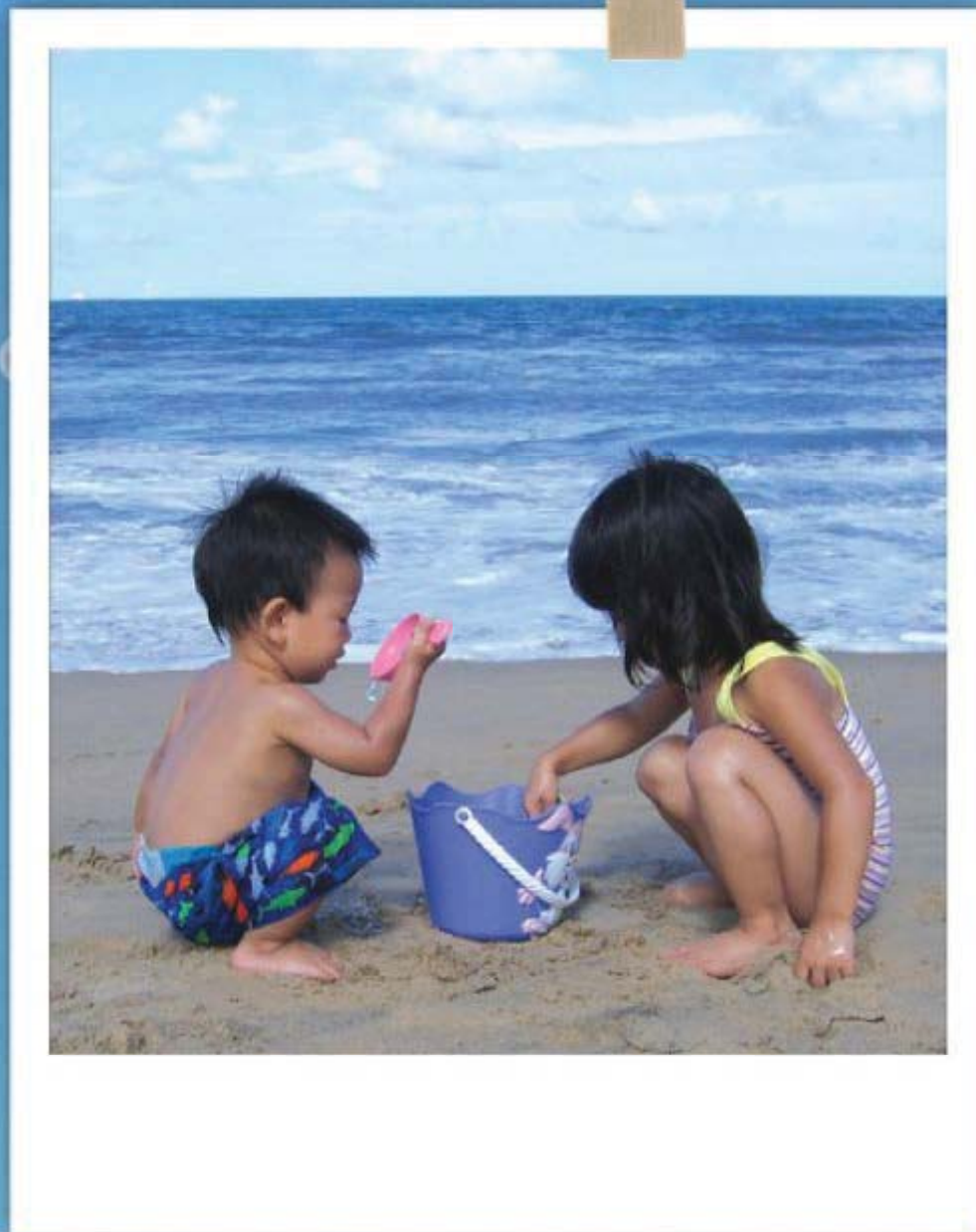
청렴 세상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07.08

2010 vol.15



안녕, 활~ 활~ 타오르는 파랑 여름!

한여름.....

후우~ 아! 더워~ 하면,
후후~옥 하고 거센 기운으로 되받아치는
후끈한 열기의 이름.

모두의 얼굴에 붉은 태양의 기운을
한껏 쏟아버리고
이 산, 저 산 질푸른 초록빛으로 물들여버리고
너른 들판, 바다 그리고
강물까지 질푸른 색으로 이글거리게 만드는
쪽빛 불씨, 여름.

열정의 색이 한껏 타오르는 즈음...
열렬한 靑綠의 향내에 취한 우리들은
어디론가 떠나고픈 방랑벽에 시달리고,

마냥 좋기 만한 아이들은
푸르른 쪽빛 풍경으로 풍덩~
빠알간 폭양 속으로 풍덩~
해사한 미소로 익어가는
바다물빛 그림이 되어버렸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0.0708 vol.15

기획°특집

기획 특집	04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청렴도 수준은 과연 몇 점?
글로벌 ACRC	08	서울 G20정상회의, 국제 반부패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다
ACRC Inside1	11	붓으로 쓰는 쪽빛처럼 푸른 청렴의 향기~
ACRC Inside2	15	청렴한 세상에 첫발을 내딛다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20	우리 은강이가 되찾은 학교생활, 그리고 파아란 꿈~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초등생 은강이에게 친구들과 선생님을 돌려주다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분양가 43억 원 부지, 권익위 현장조정으로 20년 만에 제한 해제 예정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35년 된 안마사 자격, 학력 미달로 갑자기 취소될 수 있을까?
기자의 취재노트	28	대한민국 에너지 원톱, 한국수력원자력
	31	'아이스크림 유통의 비밀'을 파헤친 KBS<소비자 고발>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35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우리가 먼저	38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무
브라보! 대한민국!	41	'선비문화'의 그 고매한 정신을 찾아서
생활법률 110	44	여름철 휴양지 '물카' 피해 대처법!!!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지구를 위하여 자연의 속살을 탐구하는 <사계절 생태여행>
ACRC News	48	
편집 후기	50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청렴도 수준은 과연 몇 점???

부패한 남베트남 정권을 무너뜨리고 베트남 통일을 이끌어낸 지도자 호찌민(胡志明)이 머리맡에 놓고 아껴 읽었다는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이 쓴 ‘목민심서_율기(律己)’ 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옛날에 어떤 현령(縣令)이 있었는데, 매우 청렴하고 아주 깨끗했다. 서울에서 공적인 일로 편지가 왔는데, 관용 촛불을 켜고 봉한 편지를 뜯어서 보다가 그 속에 집안의 편지가 들어 있자, 곧 촛불을 끄고 자기 초를 꺼내어 켜고서 편지를 읽었다. 읽기를 마친 후에야 다시 관용 촛불을 켰다.”

글·안현태 헤럴드경제 기자 일러스트·함소정

목민심서가 강조한 ‘청렴성’은 비단 조선시대 공직자들에 대한 지침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부패척결은 시공을 초월해 우리사회와 세계 각국이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는 80~9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목격했고, 21세기 선진화의 문턱에서도 ‘청렴한 세상 만들기’는 사회 전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국민과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도 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부패의 진원지와 원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솔직한 시선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국민 대다수, “한국사회 부패 수준 개선 안돼”

청소년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으로 나타난다. 지난 5월 권익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와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패하지 않은 편’ 혹은 ‘전혀 부패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응답자의 4.5%에 그쳤다. 부패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매우 부패했다=1점,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5점)해보니 10점 만점에 2.74점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조사(2.61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이 부패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3년 후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52.6%)의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해, 2009년 조사(51.7%)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과 각종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부패척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망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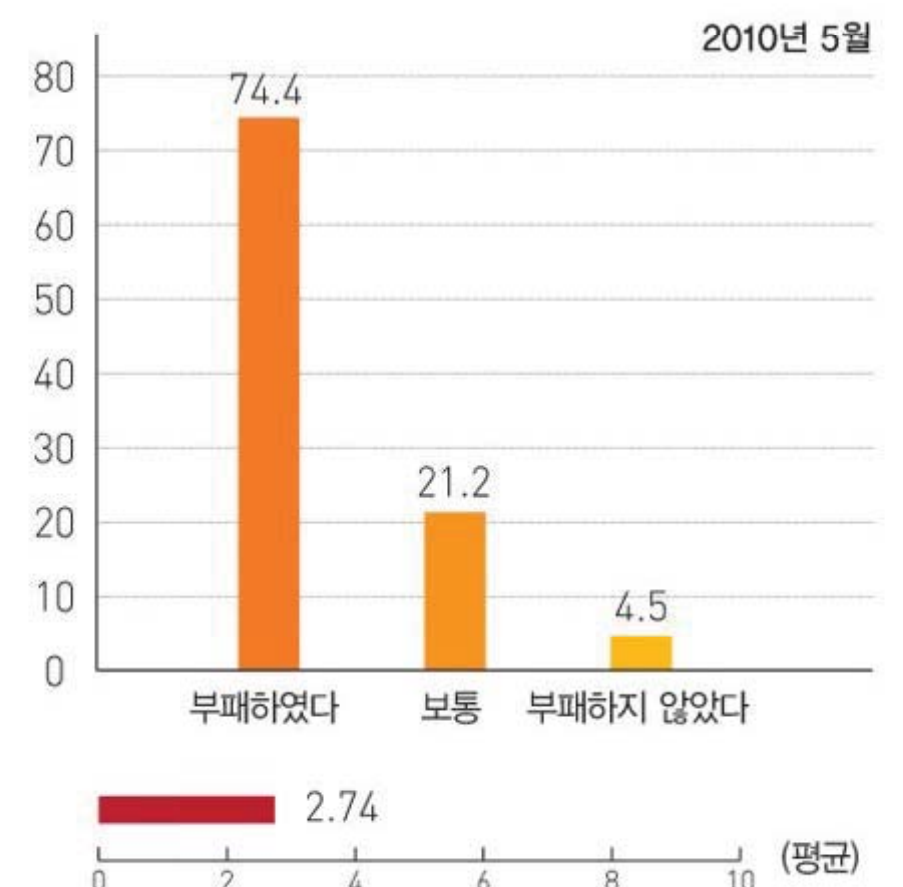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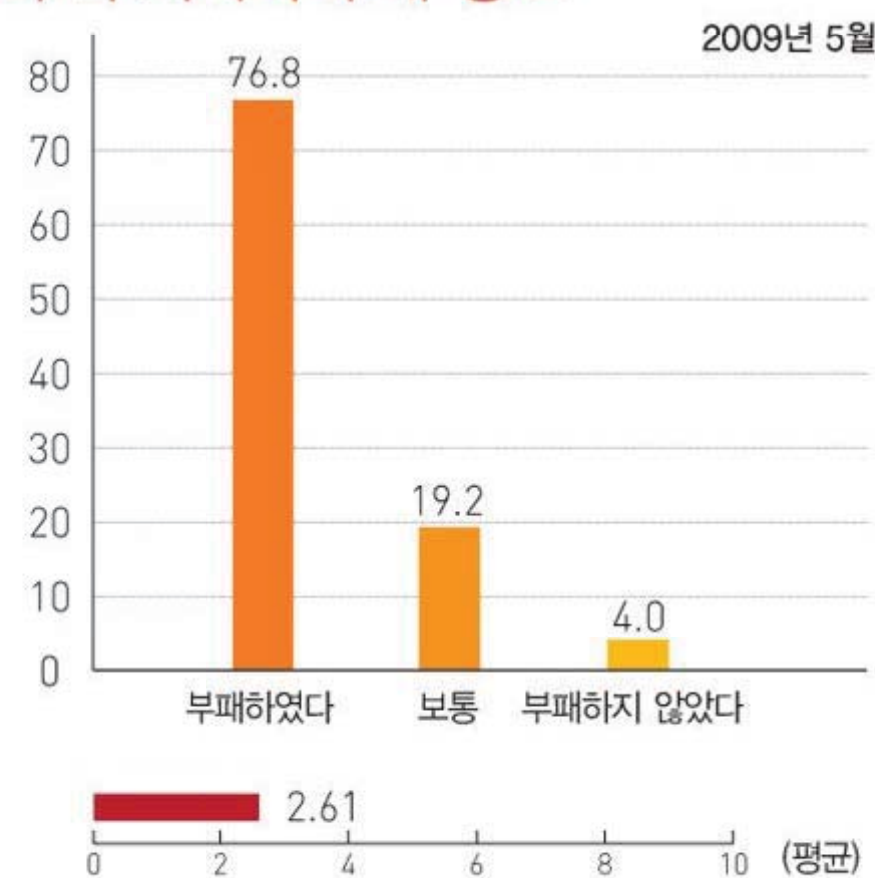
전히 비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분야는 어디일까. 조사 결과, 이들은 정당·입법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조사에서도 정치분야를 부패가 가장 심각한 사회분야(68.8%)로 대담하였다. 부패가 심각한 상위 2개 사회분야를 뽑은 종합순위 응답률을 보면 ‘행정기관’(24.9%), ‘언론분야’(23.3%), ‘교육분야’(22.4%) 등의 순서였다. 반면 ‘문화·예술·체육분야’(3%), ‘시민단체’(3.1%) 등은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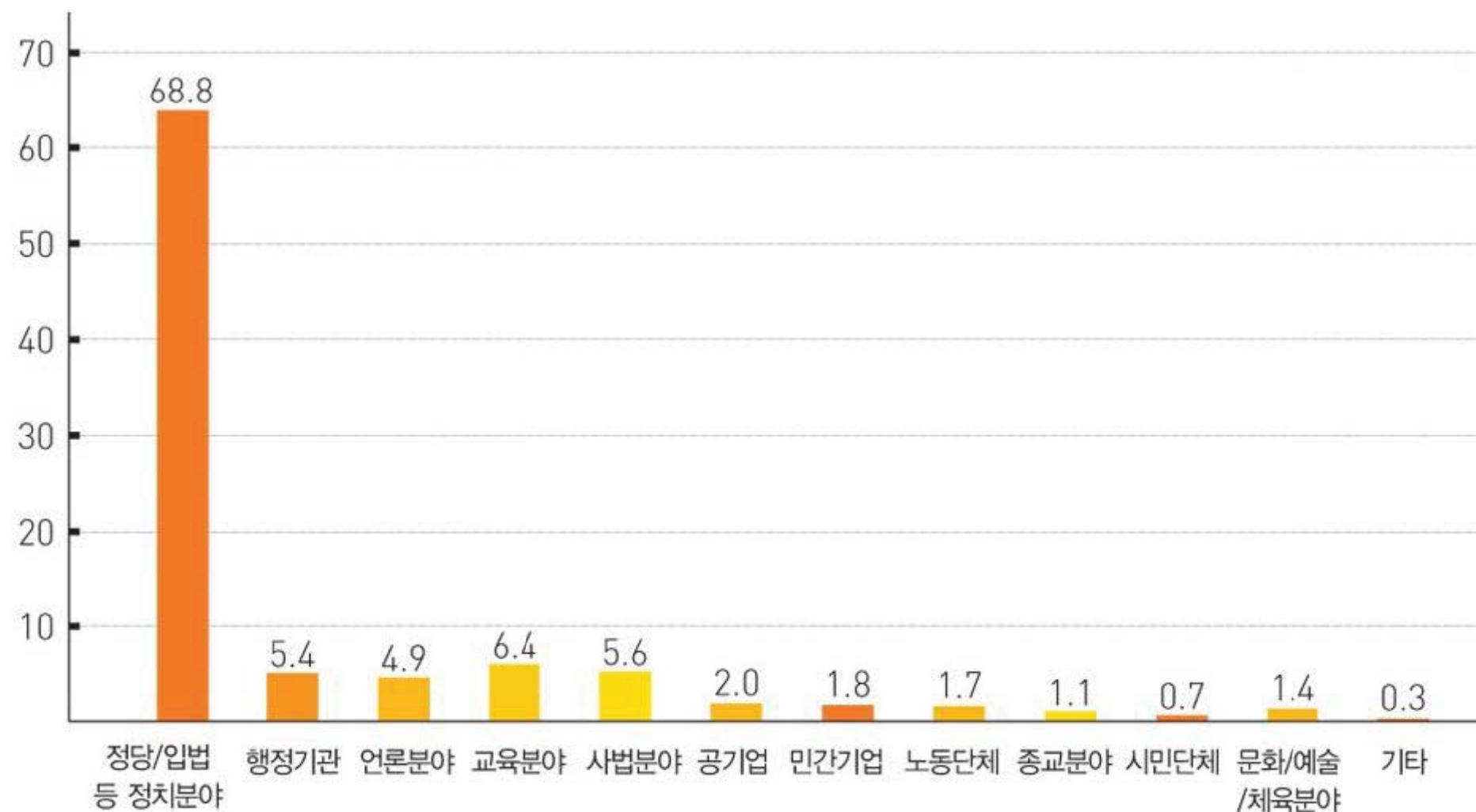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런 인식은 일반국민과 공직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권익위가 최근 일반국민 700명과 공직자 69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의 관행화 된 부패유발 요인 인식 조사’ 결과에서, 향응·접대 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상위 2순위)로 응답자의 약 70%(일반국민 65.1%, 공직자 69%)가 정치(정당)를 꼽았다. 정치분야 외에 검찰, 법원 등 법조계도 향응·접대문화가 심각한 분야로 꼽혔고, 공직자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계(34.4%)의 접대문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응답자 중 일반인의 79.9%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 문화가 관행화됐다고 여기고 있지만, 공직자는 33.7%만 관행화됐다고 대답했다. 또 일반국민들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문화가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공직자의 66%는 개선됐다고 응답,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또 권익위는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응답자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총 25개 직업군 가운데 국회의원이 가장 낮은 25위, 지방의회의원은 24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14위와 2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정당)분야와 법조계의 향응·접대가 심각하다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직업군에는 교사, 종교인, 군 장교, 대학교수가 꼽혔다. 특히, 교육계의 연이은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이 교사의 청렴성을 1위를 꼽은 것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교육계의 청렴성 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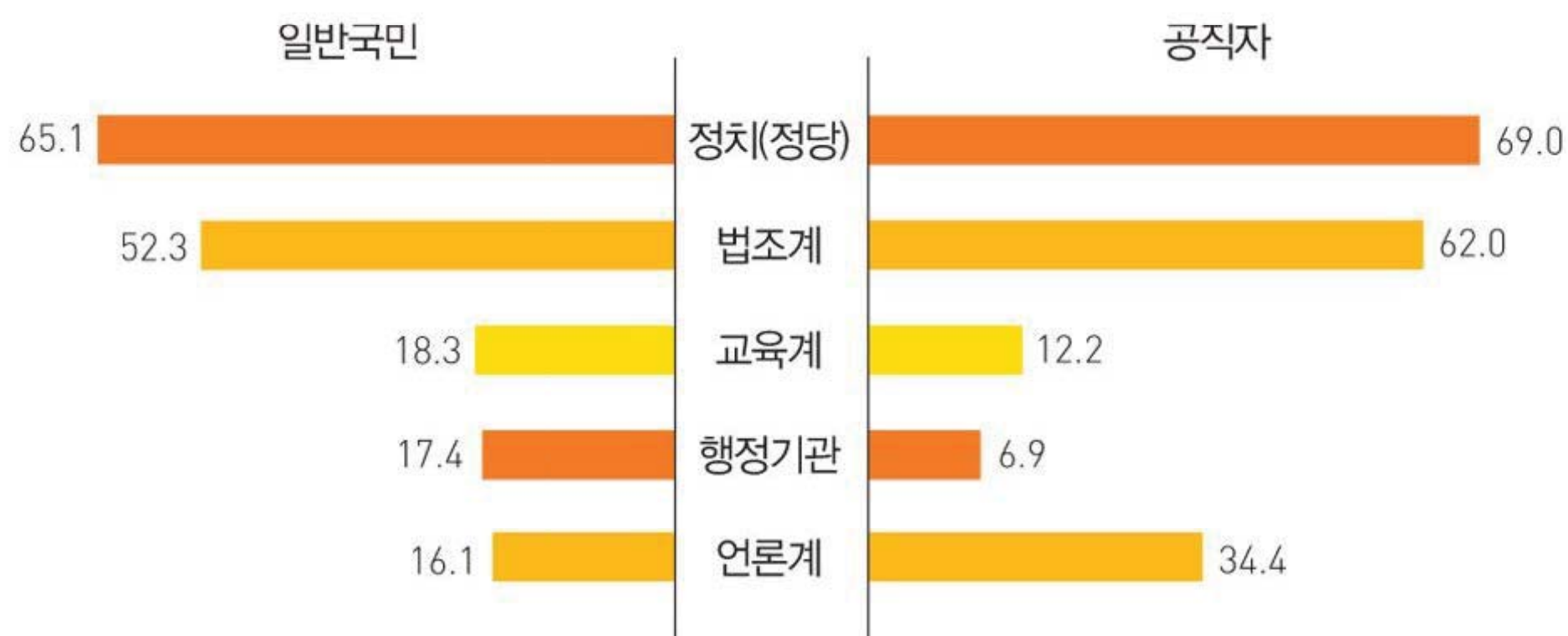
1.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



2. 부패가 가장 심각한 사회 분야



3. 향응·접대 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허술한 처벌·잘못된 과거 관행이

부패척결의 걸림돌

국민들과 청소년들은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허술한 처벌과 고착화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꼽았다.

권익위가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부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향응·접대 금액 규모를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의 50.4%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패’라고 대답했고 공무원들 역시 30.4%가 이에 동의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향응·접대 문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거 잘못된 문화의 답습’을 꼽은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았다. ‘업무관계에서의 권력관계 때문’ (30.6%), ‘향응·접대를 안 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28%)라는 응답도 나왔다.

청소년들은 부패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권익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중 55.2%는 부정부패가 지속되는 이유로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라는 응답(27.9%)이 뒤를 이었고, ‘법을 잘 몰라서’라는 대답은 8.8%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법 집행 의지와 원칙에 대해 청소년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은 윤리의식의 퇴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관련 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최신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45.3%나 됐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는 응답도 34.2%에 달했고 ‘나와 가족 및 친척의 부정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대답은 22.4%라는 수치를 나타냈다.

권익위, 반부패 민·관 협력 체제

구축 본격화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부패문화를 뿌리 뽑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재오 전 권익위 위원장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신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부패에 엄격할 수 있는 국민의식 형성이 부패척결의 첫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정 령 도 중 이 문



부패 정말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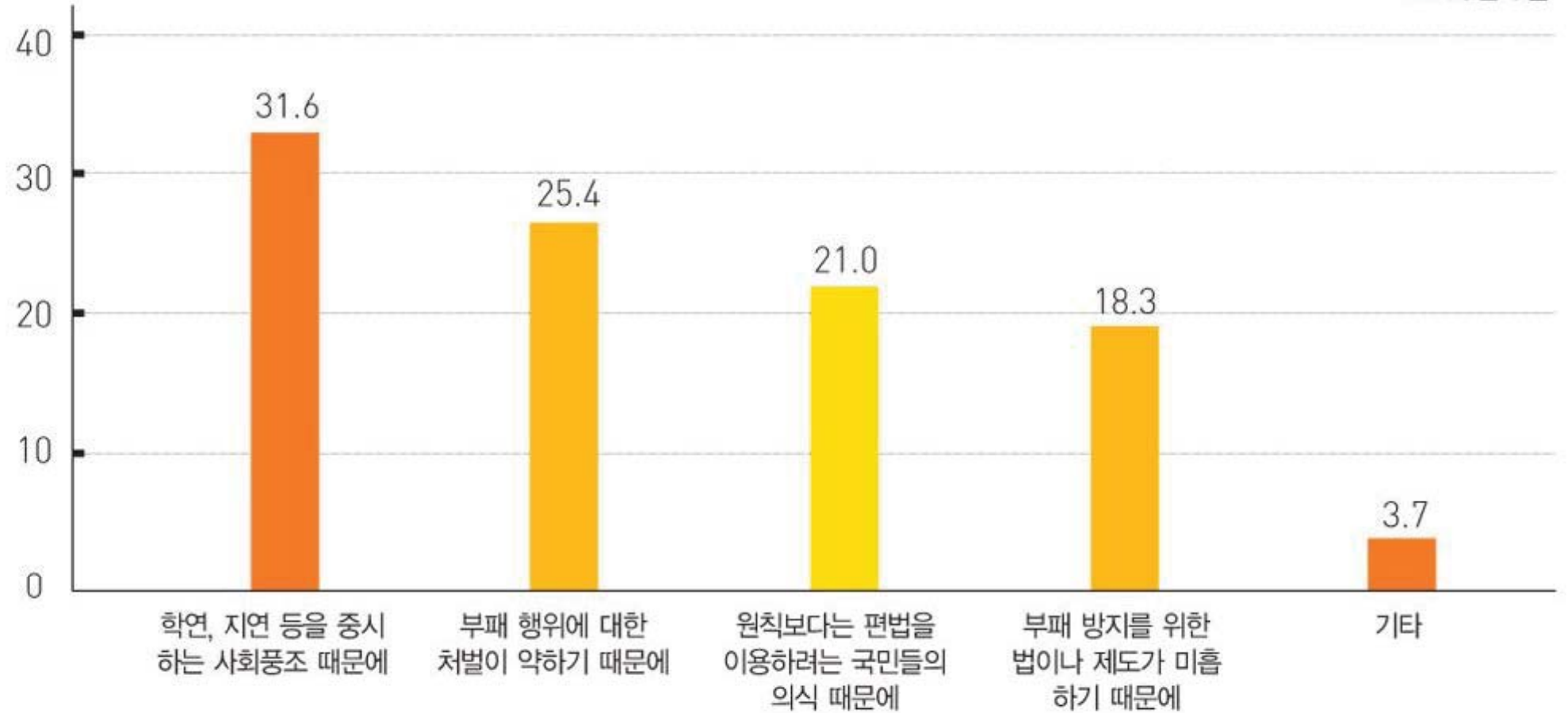
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매년 ‘말 잔치’로 끝나버리기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권익위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캠페인 확산에 나서고 있는 권익위의 활동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5월과 6월 권익위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청렴한 세상’ 거리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했다. 최근 KBS, 투명사회정책협의회 등과 ‘청렴한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 협약을 맺었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는 ‘공공 및 민간부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의 부패척결 기관처럼 강력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지만 청렴한 사회 구현은 시민들의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권익위는 국민적인 의식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권익위의 청렴교육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1~3월 권익위의 청렴교

4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발생 이유

2009년 5월



육을 받았던 각 공공기관의 고위 공무원단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1,110명은 “교육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며, 청렴인식 제고의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 급증하는 청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등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설됐다. 지난 상반기에만 무려 8600여 명이 사이버 청렴교육을 받는 등 그 호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는 지금 부패와 전쟁 중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대만은 가장 깨끗해야 할 판검사들이 피의자들에게서 뇌물과 성(性)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발각 뒤집혔다. 사법원장이 이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며 마잉주 총통에게 사표를 냈고, 민심을 우려한 마 총통은 급기야 4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부패 척결기구인 ‘엄정서’를 정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7월 20일 일자로 발표했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래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며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원칙 하에 지난 200년간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일명 ‘JO’로 불리는 스웨덴 의회의 옴부즈만은 조세·군대·행정법원·각급 법원·검찰·교정분야 공무원들의 부정을 적발 및 처벌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는 리관유 총리 취임 직후인 1960년 부패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쳐 왔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부패척결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또렷히 시사해주고 있다. 🌍



인도네시아

서울 G20 정상회의, 국제 반부패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다

– 참가국 인도네시아와 정책 공조 강화키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G20 정상회의를 통해 반부패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5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서 열린 제4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권익위와 KPK 대표들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통해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G20 차원에서 반부패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 · 윤소영 국제교류담당관실 정리 · 전채련 편집실 사진 제공 · 김중서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고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G20 차원에서 반부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문제를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제4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에 권익위 대표로 참석한 정기창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G20 차원에서 반부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는 10월 5일 서울에서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며, 권익위는 모하마드 야신(Mochammad Jasin) KPK 위원장 직무대리를 회의에 초청했다.

야신 위원장 직무대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꼭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G20 차원의 부패방지 노력에 공감하고 반부패 전문가 그룹의 설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한-인니 부패방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 한국의 부패예방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해 권익위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의 통제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배워야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인도네시아로 전수된 선진 반부패 · 청렴 프로그램은.....

권익위는 한-인니 반부패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프로그램을 전수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공무원들이 매년 한국에 파견되어 집중적인 연수를 받았으며, 권익위의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KPK는 특히 한국으로부터 전수 받은 반부패 프로그램들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상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 현황

전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추진 현황(2009)
청렴도측정 (2007년 전수)	2007년 시험 측정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98개 공공기관(중앙 정부 39개, 주 10개, 시군 49개)을 대상으로 실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2008년 전수)	2009년 재정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소속 실국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수화하여 발표
부패영향평가 (2009년 전수)	2009년 하지(Haji, 이슬람교 메카 성지순례) 기부금 관련 2개 법령 대상 시범 실시, 종교부에 개선 권고



인도네시아가 그간 전수 받아 온 프로그램들을 매우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수 받은 프로그램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지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응용하고 있었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경우 한국에서는 기관별로 부패방지 시책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평가 결과를 분류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관에 소속된 실국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여 발표하고 있었다. 실국별로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KPK는 같은 기관에 소속된 부서들 중에도 행동강령을 달리 운영하는 등 업무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 단계로 업그레이드 중인

인도네시아 KPK의 반부패 청사진

올해 KPK는 청렴도측정 대상기관을 2008년 92개에서 197개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2009년 2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하고, 청렴도 점수를 기관 성과지표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작년 종교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산림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날로 높아지는 등 한국의 반부패 프로그램은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KPK 연구개발과의 디안 파트리아(Dian Patria) 연구원은 “청렴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인니 공직사회에서 청렴도측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 같은 과 니켄 아리아티(Niken Ariati) 연구원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로, 인니 공공기관들 간에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경쟁이 유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KPK는 기존에 전수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부패신고 접수처리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관련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추가로 전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야신 위원장 직무대리는 “한국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굿 거버넌스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인니 반부패 MOU 개정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권익위는 당시 KPK와 MOU를 체결한 ‘국가청렴위원회’의 명칭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고, ‘협력 활동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홍보’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외에 부패신고 처리, 교육홍보, 인터넷 신고처리, 제도개선 등 부패예방 관련 협력 내용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7월 중 MOU 개정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MOU 개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와 KPK는 양국 반부패기구 간 MOU 이행을 통한 협력 모델이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권익위는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반부패 의제 선정과 정상선언문 작성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등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반부패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를 비롯, 전 개도국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청소년들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하였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일반국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2회 청렴 에세이 공모전」을 열었다.

글 · 전채련 편집실

www.cleansociety.kr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학생들의 청렴윤리의식 고취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개최!

- 일 시 : 2010년 5월 23일(일) 13:00 ~ 16:00 (시행시간 : 14:00 ~ 16:00)
- 장 소 : 동문여고등학교(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 논술주제 : 반부패·청렴관련 소재
예) 청렴한 사회, 청렴윤리에서 등, 논술주제는 행사당일 발표(서울본부관리)에서 문제지 개봉)
- 참가대상 : 전국 2,190개 고교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참가인원 : 학교당 3명 이내)
- 신청기간 : 2010년 4월 28일(수) ~ 2010년 5월 13일(목) 18:00
온라인(www.cleansociety.kr)에서 담당 교사가 확인기간 후, 참가신청
- 확인기간 : 2010년 5월 17일(월) ~ 2010년 5월 23일(일)
(교사장 확인) 확인기간 내에 대회 공식 홈페이지(고등학생 논술대회) → 교사장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시상규모 : 최우수학생 1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과 장학금 100만원
최우수학교 1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과 장학금 100만원
우수학생 5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과 장학금 70만원
우수학교 2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과 장학금 70만원
장려학생 10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과 장학금 50만원
장려학교 3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 상장과 장학금 50만원
* 장학금에 대한 세부규정은 수상자 명단
- 문의처 : 2010 클린코리아 운영사무국 (Tel. 02-6939-7034, Fax. 02-6939-7199)
- 참고사항 : 추천서는 2010 클린코리아 홈페이지(www.cleansociety.kr) '고등학생 논술대회'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c Rights Commission

붓으로 쓰는 쪽빛처럼 푸른 청렴의 향기~

-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 경시대회, 제2회 청렴한 세상 에세이 공모전 개최

‘현대생활에 맞는 청렴의 덕목’을 주제로 315개 고등학교, 763명의 우수 인재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청렴논술 경시대회를 통해 우리는 청렴한 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밝은 희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서울 신림고등학교 장승균 학생(17세)은 “국가청렴도는 향상되고 부패지수는 낮아지는 사회를 위하여 신뢰와 믿음 같은 내면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쳐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 개인상은 장승균 학생을 비롯한 16명이, 학교상은 우수 학생을 배출한 6개 고등학교가 뜻 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권익위는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일반국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온라인과 우편 접수를 통해 ‘제2회 청렴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청렴 윤리의식 확

산과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펼쳐진 이 대회에서 공직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청렴문화 저변 확산에 커다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일반국민 부문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최희규 씨의 “아! 둘째가 태어난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서울 송파구청 소속 박장원 씨의 “靑年, 靑年 되다”, 공직유관단체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소속 황기성 씨의 “술 취한 참새이야기”가 각 부문의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그간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청렴 에세이 공모전은 올해부터 일반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 선진국 건설’을 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또렷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_7, 8월호〉에서는 청렴논술 경시대회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서울 신림고등학교 장승균 학생(17세)의 논술을 소개한다. 🌈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청정 국가 만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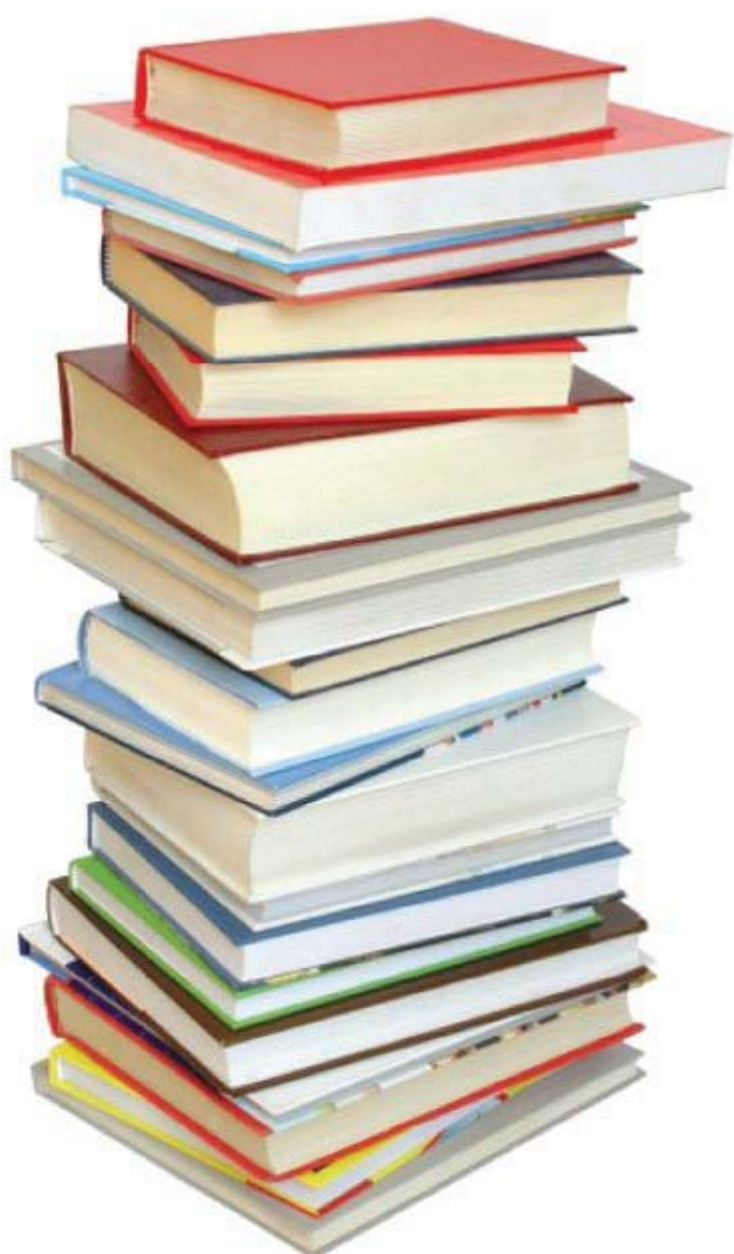
청렴^韓세상

〈청렴논술 경시대회〉 최우수작 서울 신림고등학교 장승균 학생

청렴성을 기반으로 평가된 인식조사에서 국회의원
과 정치인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사회지도
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도 최하위라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의 기둥이 될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덕으로 청렴을 꿈
은 것은 청렴 문화의 확산이 시급한 우리 사회를 단
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하고 청렴
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신뢰와
믿음과 같은 내면적 가치이다. 우리가 신뢰와 믿
음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합된 청정 국가를 확립하
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므로 실천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유지의 뿌리 역
할을 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례이지만 대부분의 흉악범들의 범죄는 어린 시
절 사회와 국가의 신뢰와 믿음을 잃는 것에서 시작
된다. 이것은 청소년 시기의 수준 높은 가치관과 바
람직한 의식을 고양시키면 훗날 건강한 사회를 만
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대중문화의 교육적 효과를 활용
하는 것이 있다. 대중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많은 영
향을 받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인식 변화를 토대로 국민들에
게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우
리 사회는 만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비롯
된 부정부패와 폐쇄적인 연고주의, 지역주의에 따
른 비리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것은 정부의 소극적 인식에 따른 안이한 대처가 하
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강경한
조치와 지속적인 법적 처벌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체계화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핀란드는 청렴도
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가 국민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었던 대책과 방법은 다양하
지만 그 중의 하나는 실용적이고 부단한 부패의 감
시이다.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
는 감시 체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교육계, 정치계, 기업계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신
뢰도를 높여야 한다.
오늘날 청렴하고도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는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시한 방안 뿐만 아니
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다른 방안도 참고하여 청정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청렴도도 향상
되고 부패지수도 낮아지는 사회를 확립하고 이어
지는 국가 경쟁력과 국력 면에서 한층 성장하여 미
래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상호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사회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범국가적인 동
참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경시대회」 최우수 수상자 장승균 (서울 신림고등학교 학생)



“‘현대생활에 필요한 청렴의 덕목은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뉴스나 신문을 볼 때 간접적으로나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신뢰나 믿음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논술대회를 통해 저의 견해를 ‘청렴’이라는 더 큰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Q) ‘전국 고등학생 청렴논술 경시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소감은?

A) 큰 대회에서 상을 타는 것이 처음이라 아직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학교 보충수업으로 논술 수업을 꾸준히 들었는데 그 점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지도해주신 백금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Q) 반부패 청렴을 위해 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사전에도 알고 계셨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A)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반부패 청렴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막연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논술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해서 청렴문화를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진정으로 청렴한 세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A)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완벽하게 청렴한 세상은 꿈꾸기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곧 다가올 미래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렴논술대회는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경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한 다른 학생 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청렴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청렴 에세이 공모전」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 수상자 최희규 씨 (부산 시민)

“아! 둘째가 태어난다”



“우리나라가 곧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고, 국민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도덕적인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많은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리의 청렴문화를 완벽히 공감할 만큼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하면 깨끗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청렴 에세이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소감은?

A) 무엇보다도 제 능력에 비해 너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끄럽습니다. 우선 이 상을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게 제 옆에서 항상 많이 격려해주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세이 내용이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깨끗한 청렴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Q) 반부패 청렴을 위해 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A) 솔직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가 하는 많은 일들을 홍보해주시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깝게 권익위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진정으로 청렴한 세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A)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세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시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청렴하게 살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은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청렴 에세이 공모전」 공무원 부문 최우수 수상자 박장원 씨 (서울 송파구청)

“靑年, 靑年 되다”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특별히 안경을 험하게 쓰지 않는데도 쓰고 있다 보면, 렌즈에 먼지가 묻고, 기름이 낀다. 그럼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닦아줘야 한다. 청렴 윤리의식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묻고 얼룩이 진다. 수시로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서로 얘기를 나눠야 한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고가야 한다. 갓 공직에 진출하는 젊은 이들은 이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청렴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다 자라서 이같은 생소한 교육을 처음 접하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문화로 체득시켜야 하는데,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선배들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교육이라 생각한다.”

Q ‘청렴 에세이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소감은?

A) 인터넷만 접속하면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낱알이 공개되는 세상이다. 이런 상을 받게 되고, 내 글이 대중에 공개된다는 사실은 영광이

자 부담이다. 더불어 ‘앞으로 더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Q 반부패 청렴을 위해 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A) 솔직히 권익위에 대해 잘 몰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홈페이지도 기웃거리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 순기능만 잘 발전시킨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조직인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줬으면 좋겠다.

Q 진정으로 청렴한 세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A) 청렴한 세상은 소원도와 같다.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상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좋은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 CF의 카피처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제2회 청렴 에세이 공모전」 공직유관단체 부문 최우수 수상자 황기성 씨 (한국전력공사)

“술 취한 참새 이야기”



“2009년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인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5.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22위입니다. 이는 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따라서 청렴윤리의 확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합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와 청렴문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 스폰서로 상징되는 검·경비리, 교육비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윤리성이 가장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부패 소식을 접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Q ‘청렴 에세이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소감은?

A) 작년에도 청렴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했었는데 입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최우수상을 받게 되니 기쁨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를 사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Clean Culture Agent’로 작지만 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생깁니다.

Q 반부패 청렴을 위해 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A)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청렴韓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해주셨고, 그로 인해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기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가 되어 주세요!!!

Q 진정으로 청렴한 세상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A) ‘우리 모두의 마음’ 이죠. 우리의 마음은 원래 아름답잖아요. 미래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청렴한 세상의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대목이 ‘인생의 결과 = 사고방식 * 능력 * 열정’의 공식입니다. 이 중 저자가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고방식(윤리의식)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강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의식이 나쁘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과 중심의 시대에도 왜 청렴윤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렴한 세상에 첫발을 내딛다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세계는 지금 해묵은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바로 이 청렴이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2010년, 우리나라 역시 청렴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작업들로 분주하다. 그동안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력에 비해 청렴지수는 한참 뒤떨어진 39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에 ‘청렴한 세상 만들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글 · 박수진 권익위 블로그 기자 사진 · 조항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을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범국민 운동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실천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권익위의 ‘청렴한 나라 만들기’ 행사는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는 한편,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공직자와 국민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한반도를 청렴의 열기로 데운 ‘청렴韓 세상’ 만들기 전국 대장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렴韓 세상’ 지역 캠페인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온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반부패 청렴’을 우리사회의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투명사회정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지역 캠페인은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춘천의 기차역과 터미널에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흥겨운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전국을 아우르는 대장정 ‘청렴韓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1막

은 6월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에는 권익위 간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교육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산지회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와 청렴 다짐 서명받기 캠페인이 함께 펼쳐졌다.

권익위는 부패의 폐해와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 역사속 청렴 인물 등을 소개하는 홍보 판넬을 부산역 광장 곳곳에 전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시민들에게 청렴 팸플릿과 ‘청렴거울’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같은 날, 춘천시청 앞 광장과 시내 일대에서는 강원도행정부지사, 춘천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청렴 캠페인의 대장정을 이어갔다.

이튿날인 6월 11일에는 대전, 인천, 광주에서 ‘청렴韓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2막이 열리며 청렴의 열기를 한껏 드높였다.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투명사회정책협의회장, 대전광역시부시장 등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시민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내용의 청렴 캠페인이 펼쳐졌다. 가볍게 차려입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상냥한 안내는 거리를

오가는 이들에게 이번 캠페인에 대한 호감을 높였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시민들의 청렴서명을 얻어냈다.

권익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민간영역의 청렴문화 조성 등 ‘청렴韓 세상’ 만들기 3대 프로젝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공직자는 물론 대국민 차원에서 ‘청렴한 생활’을 우리 사회의 문화로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향후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캠페인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윤리 워크숍 열려

청렴한 세상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윤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19위이지만 기업의 경영윤리는 48위에 그쳐 국가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기업윤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반부패, 윤리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준비한 ‘윤리경영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강연’과 함께 ‘컨버전스 시대의 윤리경영’이라는 주제로 안철수연구소 김홍선 대표이사의 특별강좌가 이어졌다. 기업윤리의 올바른 정착과 윤리경영 관계자의 사회적 네트워킹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워크숍은 분야별로 후발 기업이 선도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교류를 유도하면서, 그간 대기업에 한정되었던 윤리경영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오는 10월 제정될 예정인 ISO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지난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8차 총회 결과를 보고하고,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통한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부신고제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등 주요 이슈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주제와 연계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함께 토의했다.

청렴한 국가 건설 위해 공영방공 KBS와 손잡다

오는 11월,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원조를 받다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지만,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국가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선진 국가로의 진입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영방송 K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언론은 ‘청렴한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 확산 및 취재 보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굴 보도함으로써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그 밖에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사 또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청렴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이어지게

권익위는 어린 시절부터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서도 청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및 (사)대한사



립중고등학교장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유치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청렴교육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각 급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까지 청렴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6월 3일 활동에 들어간 2010년 '제2기 대학생 청렴홍보단'은 발대식에서 오직 청렴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굳게 다짐하며, 권익위 직원들과 함께 청렴한 세상 지문찍기 등 여러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 대학생 청렴홍보단은 지역 활동, 윤리경영 기업 방문, UN반부패 협약 워크숍 등 지난 2009년 '제1기 대학생 청렴홍보단'에 비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팀에게는 청렴선진국 여행권 및 위원장 상과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바로 오늘도 대학생 청렴홍보단은 자신이 선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과 직접 만든 콘텐츠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청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렴한 세상에서 펼쳐진 월드컵 거리응원전

원정 월드컵 16강에 첫발을 내디딘 2010 남아공 월드컵.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던 축제의 현장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렴한 세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조별 예선전이 치러지던 지난 6월 12일, 17일, 23일 서울 상암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네 개 도시에서 흥겨운 월드컵 응원 분위기와 어울리는 청렴한 캠페인이 펼쳐져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페이스페인팅, 청렴도 향상 소망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한층 뜨거워진 캠페인 현장은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이자 청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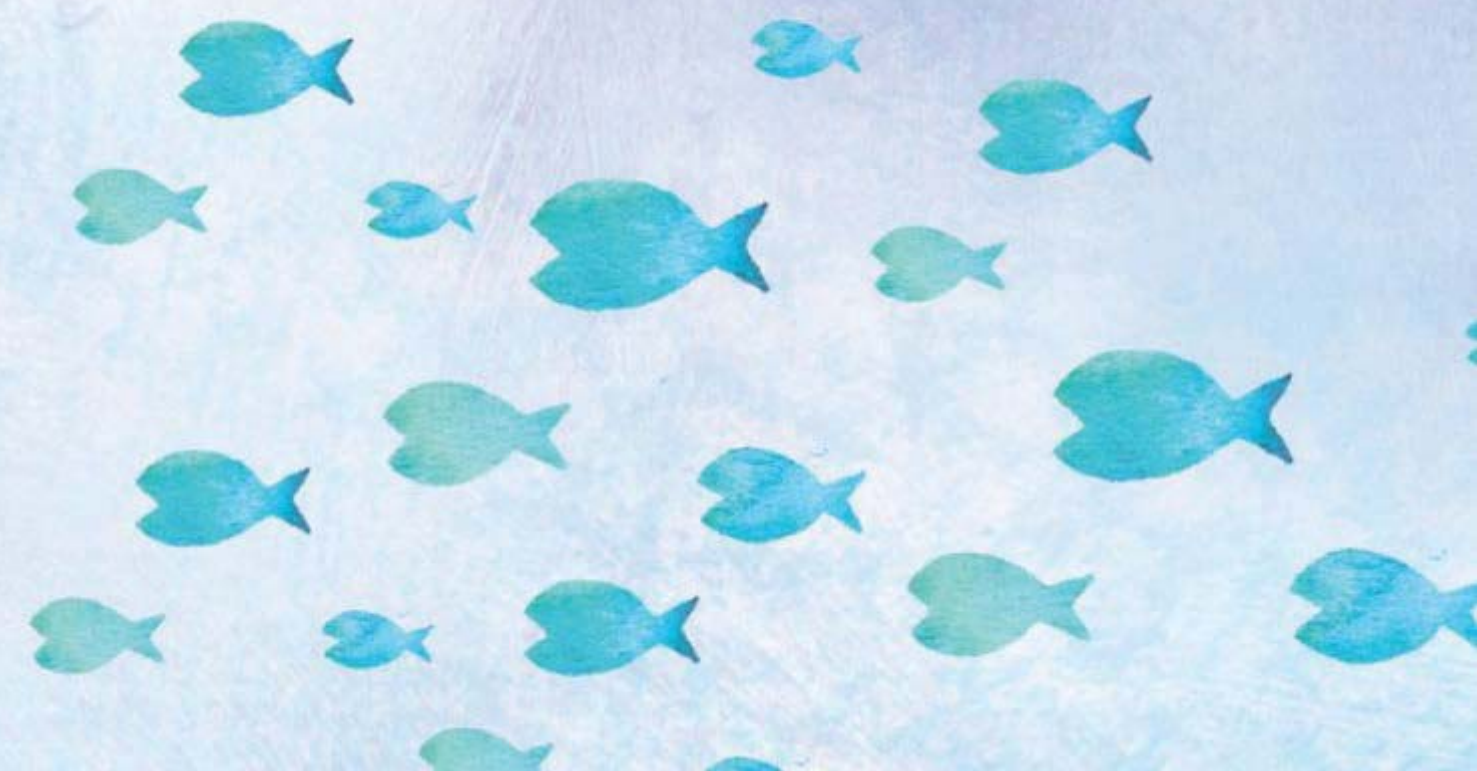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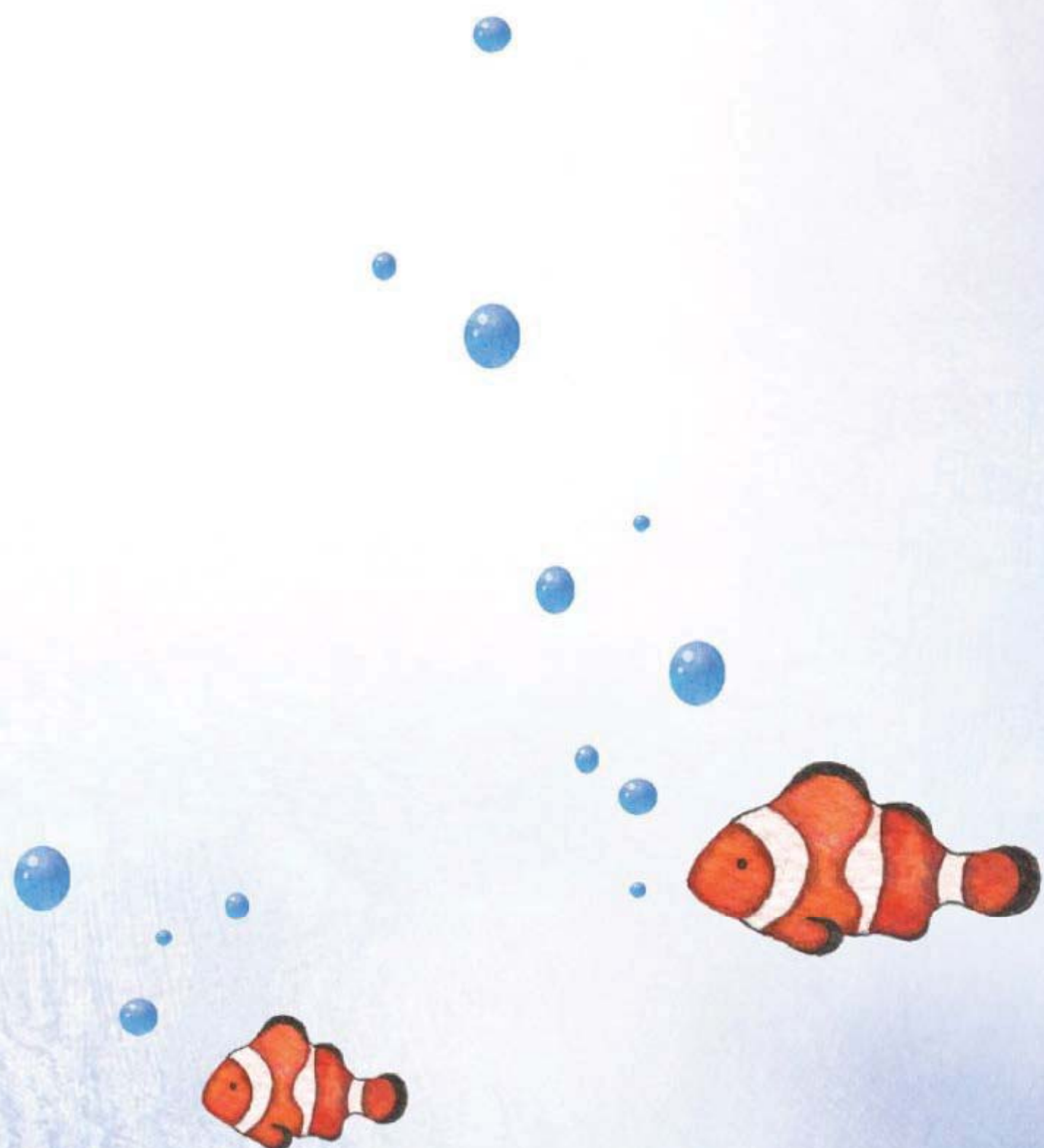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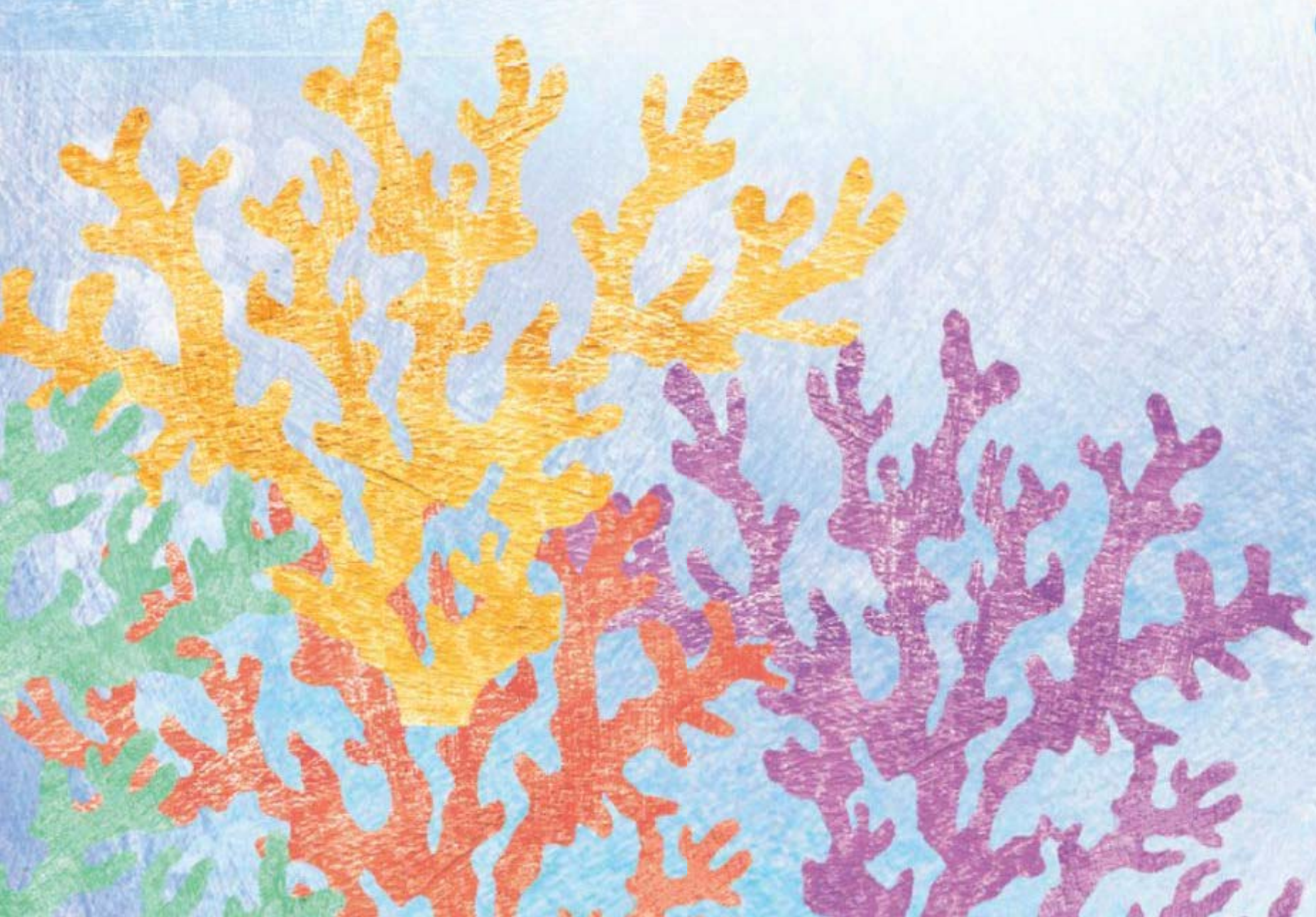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이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이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부패'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맡겨 놓았기 위해 '청렴한 세상 지방 캠페인', '기업윤리 워크숍', '사회단체들과의 업무협약 체결', '월드컵 거리 응원'에 동참하며 청렴한 세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전국 주요 5개 광역 지역에서 시작된 '청렴韓 세상' 만들기 전국 캠페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렴한 세상 만들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캠페인에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 위주의 국민운동으로 청렴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였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청렴한 세상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며,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정부 차원의 실천 방안 마련에도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20	우리 은강이가 되찾은 학교생활, 그리고 파아란 꿈~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초등생 은강이에게 친구들과 선생님을 돌려주다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분양가 43억 원 부지, 권익위 현장조정으로 20년 만에 제한 해제 예정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35년 된 안마사 자격, 학력 미달로 갑자기 취소될 수 있을까?
기자의 취재노트	28	대한민국 에너지 원톱, 한국수력원자력
	31	'아이스크림 유통의 비밀'을 파헤친 KBS<소비자 고발>



우리 은강이가 되찾은 학교생활, 그리고 파아란 꿈~

글 · 김대운, 정숙애

얼마 전, 아이의 입학 문제로 생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우리 나이로 일곱 살인 제 딸 은강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을 치른 후, 신바람 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은강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얻은 모든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3월 중순경 어느날, 학교로부터 우리 아이의 입학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학부모가 아동취학명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입학한 이후로 결석 한 번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던 아이가 학생명부에도 없는 학생이라니……. 학교, 교육청, 도교육청 이하 담당자들의 입장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면사무소를 찾아가자, 해당 민원 담당자를 통해 지난 2009년에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기입학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유치원을 통해서도 입학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신청기한이 지나 조기입학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었다더라면 무리하게 제 아이의 입학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조차 2008년 8월부로 바뀌게 된 새 법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유치원생으로 되돌아가게 될 경우 은강이는 그곳에서 수치심을 느낄 것이고, 설사 학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줌으로써 우리 은강이가 청강생으로 1년 동안 학교를 다닌 뒤 재입학을 하게 될 경우 학습태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너무도 자명해보였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 이 정도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해주실 거라 믿었던 부모의 마음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권익위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우리 부부는 적지 않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 문제와 관련된 담당자를 만나 볼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는 섬에서 올라오기 전, 정덕양 조사관님과 통화한 것이 한 가닥 희망이 되어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재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 조사관께서 전화로 직접 이 민원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정 조사관님은 교육청 담당자, 은강이 담임선생님, 교장 선생님 등과 직접 통화하시며 아이의 입학 문제가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 온 짧은 공문,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답답한 심정을 너무도 시원스럽게 집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만을 구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권익위에서 보내주신 정성스런 한 통의 서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측에서도 우리 은강이의 입학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은강이는 4월 12일자로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학적부에도 그 이름이 등재되어 정식 학생으로서 활기찬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교육민원과는 일반행정,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통일·외교·법무분야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다. 타 민원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민원까지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오늘도 행정문화교육민원과의 식구들은 민원전화에, 현장조사에 눈코 뜰 새 없다.

신속하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사람들의 하루는 오늘도 알찬 땀방울로 채워지고 있었다.

글·편경애 편집실 사진·조항진



초등생 은강이에게 친구들과 선생님을 돌려주다~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조사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처 받지 않고 바르고 또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란다.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조사관. 교육청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교육행정 부문 특히 학교 설립, 통학권 조정, 학교민원에 탁월함을 보이며 ‘은강이의 입학 민원’을 명쾌하게 해결했다.

청천벽력 같은 ‘입학 무효’ 통지

정덕양 조사관이 은강이의 이야기를 접한 것은 3월말이었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해 새 친구들을 사귀고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해 들떠 있는 은강이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연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정덕양 조사관에게도 안타깝게 들렸다.

은강이는 3월 2일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섬마을 분교에서 입학식을 거쳐 반 배정을 받고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육청으로부터 ‘입학 무효’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이유인즉, 입학 직전 연도에 작성되는 ‘취학아동명부’에 은강이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에 따라, 201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2004년 7월생인 은강이의 경우에는 조기입학 신청을 해야만 취학아동명부에 등재가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2008년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교육청과 학교에 이것을 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은강이의 입학은 인정될 수 없었다.

“마흔 네 살에 얻게 된 우리 은강이는 학교 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라는 은강이 엄마, 정숙애 씨는 아이에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이의 실망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2년간 유치원을 다닌 은강이는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고, 매일매일 행복한 웃음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입학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로, 교육청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희망을 준 곳은 없었다.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속한 해결

사연을 들은 정덕양 조사관은 관할 교육청 관계자, 분교장 등과 통화를 시도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은강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교육청에서는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는 하지만 만약 고지를 받았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 굳이 조기입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 특성상 워낙 학생 수가 적은 분교이기 때문에 고지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강이의 입학을 무효화한다면 아이에게 상처가 클 것이 분명했다.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 조사관이 때마침 떠올린 것은 ‘권리구제’.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권리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는 게 문제였다. 그동안 은강이가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2개월은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은강이의 부모님 역시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생각 끝에 정덕



양 조사관이 선택한 것은 ‘합의권고’였다.

“합의권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도 빠른 행정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교육청에 합의권고를 알렸죠. 해당 기관에서도 다행히 이를 수용해 바로 은강이를 취학아동명부에 올리고 입학조치를 하였습니다.”라는 정 조사관의 이야기는 차분하고 명확했다.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배문규 과장은 “민원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덕양 조사관은 타고난 현장형 인재”로 “민원 당사자 사이의 일방적 주장이 있을 때나, 이해관계자 간에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탁월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원인의 답답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정 조사관의 모습에서 ‘작은 고충이라도 귀중한 권리를 찾아주고, 서민들의 고충을 내 일처럼 해결해주는 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자부하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다. 🌈

분양가 43억원 부지 20년 만에 제한 해제 예정

*전남 영암대불산업단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35년 된 안마사 자격, 학력 미달로 갑자기 취소될 수 있을까?

Q 1974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은 A씨는 35년간 안마사로 생계를 이어온 시각장애인이다. 그런데 A씨는 안마사 자격 취득 당시 자격 요건인 '중학교 이상 교육' 을 받지 못했었고, 뒤늦게 이를 안 B씨는 관련 기관에 A씨를 고발해 2010년 1월 A씨의 안마사 자격이 취소됐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했는데, 과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글 · 김희정 편집실



○ 안마사가 하는 일은?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마사가 되는 과정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부, 생리 병리, 보건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등의 의약 과목을 총 2000여 시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1995년부터 맹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 위의 과목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깊이 있는 의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출처 :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A >> 학력조건 미달로 35년 된 안마사 자격이 취소

A씨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 당시 「의료법」에 의하면,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해져 있었다. 또한 당시 「간호보조원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 과정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대로라면 시각장애인인 A씨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았어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A씨는 당시 이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를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 B씨는 금전관계로 A씨와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A씨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학력 조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발해버렸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가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2010년 1월 A씨의 안마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 '공익상 필요' 보다 '사익 침해'에 무게를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5년 동안 안마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A씨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A씨는 “당시 안마수련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안마사협회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자들을 입소하게 해줘 본인도 무리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안마는 업무 특성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아닌데다, 지금에 와서 안마사 자격이 취소되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A씨가 안마사 자격요건에 필요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을 받은 지 약 35년이 지났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안마사의 업무는 중학교 교육과정보다는 안마수련원의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규정에 학력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력조건이 안마사 자격의 중요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A씨의 안마사 자격 취소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마사 자격을 취소해 얻는 ‘공익상 필요’ 보다, 취소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A씨는 35년간 이어온 안마사 업무를 계속 이어가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자력본부

‘청정’ 과 ‘청렴’ 으로 세계 최고를 꿈꾸다

대한민국 에너지 원톱, 한국수력원자력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최대 전력수요는 매년 전년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해만 해도 7월 중순경 6,327만 4천㎾로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력수요의 증가와 화석에너지의 고갈을 앞둔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바야흐로 ‘에너지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 다양한 그린 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며 동분서주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정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원자력사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국내 에너지 수급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쾌거를 이룩한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저력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 저력의 뿌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글 · 편경애 편집실 사진 · 조항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산업의 심장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설립된 발전회사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출범했다. 2010년 7월 현재 7,768

명의 임직원이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 및 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에 각각 원자력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 화천, 팔당, 청평 등 7기의 수력발전소를, 그 외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도 보유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발전설비의 24.9%를 점유하고 있으며, 4,732만MWh의 발전량으로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30년까지 발전량 점유율을 60%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4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한 사실은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2017년에 1호기 완공을 시작으로 매 1년마다 1호기씩 추가해 원자력발전소 총 4기(5600MW)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억 달러의 계약금 외에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0여 년에 걸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덕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8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 중이다. 2009년 세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6.0%인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원전 이용률은 91.7%에 이르고, 2000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9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UAE 원전 수주는 한수원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개가이기도 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한 대용량의 신형원전(APR1400)에 들어가는 핵심기기이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 UAE 원전의 모델인 신고리 3호기 원자로가 설치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 탄산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1kWh의 전기 생산 단가가 약 39원인 원자력은 약 53원인 석탄이나 약 143원인 가스, 160원 정도인 기름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에너지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청평 수력발전소에서 청렴 워크숍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팀의 푸른 미소

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수력원자력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라 할 만하다.

개선과 노력으로 얻은 ‘3년 연속 청렴도 1위’

에너지전략산업의 심장이라 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전 경영평가에서 발전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청렴도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과 개선의 결과였다. 2006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청렴도 성적은 하위권이었다. 한전의 6개 발전사 중에서 2003년에는 5위, 2004년과 2004년에는 3위에 머물렀으며 2006년에는 최하위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꼴찌’의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개선에 나섰다. 우선 기존에 경영기획처에서 시행했던 청렴도 평가·관리를 감사실로 이관함으로써 취약분야의 집중감



한국수력원자력의 반부패·청렴을 위해 24시간이 모자란 신우룡 감사 이하 감사팀 간부들

찰과 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청렴도 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 단위를 사업소 단위에서 발전소와 건설소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자체 청렴도 조사를 강화하며 취약분야를 적극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의 사업소 단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지역 업체와 지역사회 환원을 고려해야 하는 원전 사업의 특성, 부품 및 자재의 특성상 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소에서도 각 2기의 원전을 단위로 하여 청렴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에게 청렴준수서약을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과 설명회도 강화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한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ERP 시스템을 보완했다. 또 대민업무 담당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자재구매 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서의 근무자는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2008년도부터 팀장 이상의 간부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간부 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제고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 청렴도 평가에서 마침내 3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제는 ‘4년 연속 1위’에 도전하고 있다. 감사실 신우룡 감사는 “무엇보다 CEO의 확고한 의지가 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근간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청렴도 조사를 시스템화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 직원들과 청렴을 키워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100년을 이어갈 ‘청렴의 체질화’ 기대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온 권익위는 지난해보다 180여 개 더 많은 6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권익위로부터 시책 평가와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에 청렴TF를 구성해 청렴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한수원이 모든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감사 및 감사실장의 사업소 특별 순회교육 등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마련하였다.

“청렴한 생활이 몸에 배어 부패한 행위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청렴의 체질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신우룡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으로부터 분사한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대의 노력이 향후 인생을 좌우하듯 한국수력원자력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청렴의 체질화’와 같은 청렴문화 보급에 삶의 목표를 둔다는 신우룡 감사

청렴TF 운영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의 체계적 추진, 전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지 고양, 협력 회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자체 청렴도수준 진단을 통한 취약분야 개선, 적극적인 모범사례 발굴 및 교육·홍보, 클린 신고기능 활성화 및 부패행위 처벌 시행 등 2010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응전략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또 감사실에서는 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CEO 주도의 청렴활동, 평가와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등 윤리경영 실천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2003년 세계 원전사업협회 최우수상 수상, 2008년 원전이용률 세계 1위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원톱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2년 연속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존경받는 기업(발전산업 부문)’ 선정, 지식경제부 주최 ‘지속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푸른 청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청렴정책을 바탕으로 ‘발전분야 최고’에서 ‘공공기관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



‘아이스크림 유통의 비밀’을 파헤친 KBS <소비자고발> ‘4년 전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

4월 초, 빙과업체에서는 최고 45%까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연달아 인상했다. 하지만 소매점에서는 50%, 심지어 70%까지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몇년 전에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은 어떨까? ‘가격표와 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글·전현지 KBS <소비자고발> 작가 사진 제공·KBS <소비자고발>팀

4월부터 부쩍 오른 아이스크림 가격 불만에 관한 제보글들. 판매점에서는 할인이 계속되는데 제조사에서는 오히려 무리한 가격 인상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궁금이가 궁금하다는 내용들이었다. 대체 아이스크림의 원가가 얼마기에 50%로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일까. 판매점의 반값 할인과 제조사의 가격 인상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소비자들의 문의가 제보란을 장악하기 시작할 무렵, 10여 년간 지방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해왔다는 한 제보자가 소비자고발팀 앞으로 결정적인 제보를 남겼다. 아이스크림 가격의 기현상에 바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라는 영업방식이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 길로 바로 제보자에게 달려갔다.

미심쩍은 반값 할인! 사라진 가격표!

누가 정한 '희망' 소비자가격인가

제보자가 아이스크림의 유통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은 제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냉동창고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성애가 낀 아이스크림 박스들이 창고를 온통 채우고 있었다. 이른바 재고품들이었다. 재고품 박스 안을 열어보니 오래되다 못해 색이 변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얼음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조일자도 찍혀있지 않아 얼마나 오래된 아이스크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제품들. 제보자는 심지어 4, 5년 전 제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왜 이런 오래된 재고품들을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 제보자는 그 원인이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한 제조사들의 물품 과잉공급에 있다며 하소연했다. 제조사 측에서 판매장려금을 주고 대리점들에 과도한 물량을 떠넘기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것. 이렇게 재고를 떠안은 대리점들은 남아도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헐값으로 넘겼고, 헐값으로 물품을 공급 받은 타 지역의 소매점에서는 이 재고품들이 손님을 끌기 위한 할인상품으로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이것이 곧 아이스크림 반값 할인의 시작이었던 것. 하지만 점차 이런 식의 파격적인 할인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대부분의 소매점으로 보편화되면서 아이스크림의 가격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제조사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영업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했고 이것이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제조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생겨난 장려금은 소매점까지 그 고리가 이어졌다. 취재 중 만난 한 소매점 업주는 판매장려금을 받고 많은 물품을 떠안은 대신 공급단가를 할인받는다며 아이스크림 거래장부를 보여줬다. 소비자가격 700원짜리 아이스크림의 공급단가는 280원. 그렇게 해서 700원짜리 제품을 반값인 350원에

팔아도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밀어내기식 영업과 장려금 뒷거래가 낳은 가격 거품. 하지만 직접 만난 빙과업체 제조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오히려 대리점 측에서 제조사에 장려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체들의 관행이 가격 인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조사의 말.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어찌되었든 인상된 가격을 떠안은 것은 소비자들이었다.

냉동식품에 대한 맹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스크림

이런 밀어내기식 영업방식이 위험한 것은 물량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재고품들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 권익위(구 고충위)는 2007년 7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기하도록 권고했고, 이를 계기로 제도가 실제 제로 의무화된 것은 2009년 1월부터. 때문에 포장지에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제품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지난 제품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제작진이 시중의 소매점을 돌아다니며 조사해 본 결과 경악스럽게도 현재 1500원에 팔리는 제품이 700원으로 팔리던 시절의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었다. 4, 5년도 더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마트의 오픈 쇼케이스 등에 보관된 제품이나 낡고 오래된 냉동고에서 보관된 제품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녹아 있거나,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해 맛이 변한 제품들도 다수 발견됐다. 성애가 많이 끼거나 뚜껑이 깨진 제품들, 심지어 종이포장지에 구멍이 난 제품도 있었다. 문제가 없는지 판매점 측에 문의했지만 다른 제품으로 바꿔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관된 대답만 들게 될 뿐이었다. 아이스크림이 냉동식품이라 설령 제품이 손상됐어도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스크림의 규정 보관온도가 영하 18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하 18도 이하로만 보관된다면 백 년이 지나도 안전하다는 소매점 직원의 말도 들을 수 있었다.

이렇듯 아이스크림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은 맹신에 가까울 정도였다. 하지만 정말 아이스크림이 절대적인 안전식품일까. 제작진이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만난 전문가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영하 18도 이하로 아이스크림 보관온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아이스크림 속 얼음결정체의 크기가 커지게 되기 때문. 녹았다 재냉동 된 아이스크림은 얼음결정체의 크기가 커져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거친 식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다. 제작진이 시중에서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포장이 손상된 제품 42개를 골라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것이다. 그 중 일부에선 식중독균까지 검출됐다.

제조공정에서 살균과정을 거치고 유통 중에도 영하로 유지되는 데도 왜 이렇게 세균이 검출된 걸까. 제작진은 혹시 아이스크림이 유통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 될 가능성은 없는지 취재해보기로 했다. 치밀한 잠입취재를 통해 대리점 창고와 냉동차 등을 추적하며 납품현장과 유통실태를 지켜봤다. 그런데 냉동차 기사와 대리점 직원 등을 통해 알아낸 아이스크림 유통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영하 18도로 유지되어야 할 냉동창고는 영하 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를 묻자 일할 때 직원들이 일하기 춥기 때문에 온도를 덜 낮추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소매점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할 때 쓰는 냉동차 역시 규정 온도인 영하 18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상자를 다 실은 후에야 시동을 켜기 시작해 상온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기까지는 20, 30여 분이 소요됐고, 소매점으로 납품을 할 때도 냉동차를 평균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정도로 유지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납품할 장소가 가깝다면 냉동장치를 아예 틀지 않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건을 소매점 냉동고로 운반하는 동안에도 역시 시동을 꺼두어 냉기가 돌지 않는 상태로 보관되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녹아서 형태가 변하지만 양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

이렇게 냉동창고, 냉동차에서 규정온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최종 보관처인 소매점 냉동고조차도 11곳 중 단 한 곳도 규정온도를 지키고 있는 곳이 없었다. 취재 중에 만난 일부 소매점 업주는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온도조절 장치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으며, 규정온도가 몇 도인지조차 모르는 업주들도 많았다.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업체 측에서 판매에만 급급하고 관리나 규정온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냉동식품이라는 맹신 아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스크림. 하지만 제작진의 취재결과, 아이스크림도 다른 식품과 다를 바 없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었다. 그 관리의 미흡함에 대해 식약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청 역시 아이스크림은 냉동식품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또한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현지 취재결과 젤라또 등 아이스크림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크림에도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게 되어 있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엄격한 처벌이 주어졌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을 주고 최상의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상미기간'을 정해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조일자만 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유통 및 보관 시 영하 18도가 지켜졌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영하 18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관리 또한 허술하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한 냉동식품이라면 몇 년이 지나도 괜찮다는 원시적인 관리형태에서 벗어나 유통기한이 오래되어 식감이 변하거나 변질된 제품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더 투명한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35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우리가 먼저

38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무

브라보! 대한민국!

41

‘선비문화’의 그 고매한 정신을 찾아서

생활법률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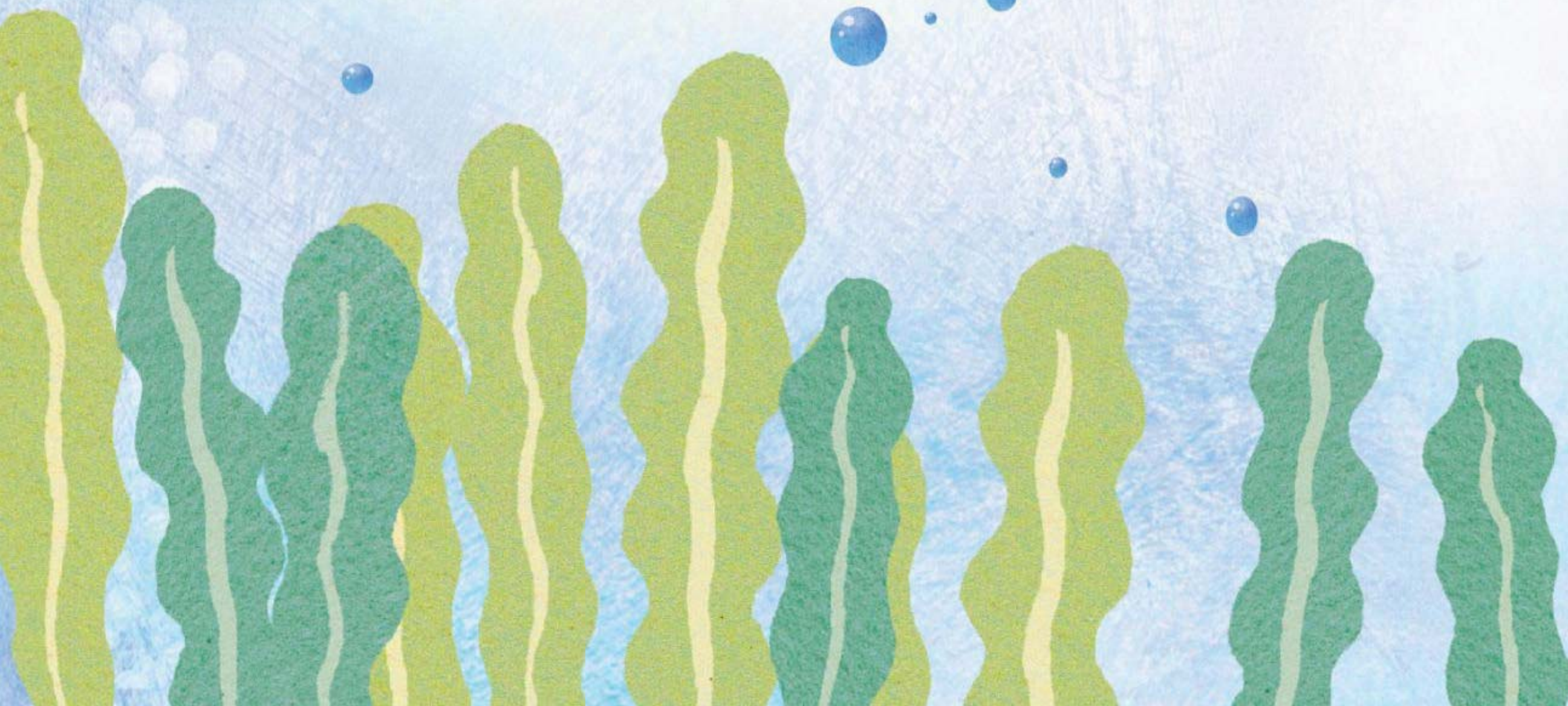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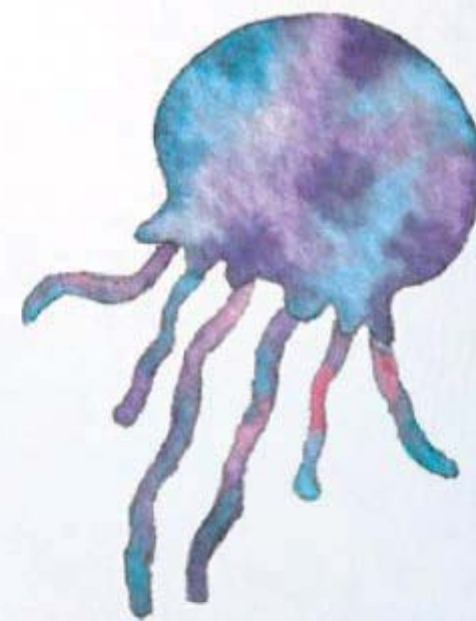
44

여름철 휴양지 ‘몰카’ 피해 대처법!!!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지구를 위하여 자연의 속살을
탐구하는 <사계절 생태여행>



오체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도, 벽을 등지고 국숫발을 허겁지겁 빨아먹는 소녀를 바라보는 렌즈의 눈빛에도, 환한 웃음을 남기고 떠나는 가난한 이들의 뒷모습을 포착하는 순간에도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올해로 꼭 53년째, 29살에 시작해 83살이 된 지금까지 카메라와 함께 한 최민식(83세) 씨의 몸에는 열정의 피가 팔팔 끓어올랐다. 한국에서보다 세계가 먼저 주목한 그를, 부산의 한 재래시장 뒷골목길 시간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만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글·김현주 편집실 사진·조항진
사진 제공·「휴먼」최민식 사진선집, 눈빛출판사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평생 가난한 삶을 촬영해 왔다

그가 부산의 한 재래시장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가옥으로 안내했다. 작은 마당이 딸린 옛 가옥이었다. 그는 8월에 출간할 예정인 <사람은 무엇으로 가는가?> 포토에세이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안내한 서재에는 사진집과 철학,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단행본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서재의 가구나 벽지는 빛이 바랬으나 머무는 이의 정신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최민식의 공간이었다. 암실은 화장실 안쪽 쪽문 안에 두 사람이 겨우 비집고 앉을만 했다. 그는 오늘도 그곳에서 발로 뛰어다니며 촬영한 사진들을 인화하고, 글을 쓰며 지내고 있었다. 올해 나이 83세, 예술작업은 원로와 신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 주고 있었다. 통장에 푼푼이 모아둔 항공료를 여행사에 가져가면 올겨울 아프리카 우간다 텐트촌으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자랑했다. 가족들이 극구 말리는 데도 그의 오체의 끓는 피는 잠재울 수 없을 듯하다.

**방관하지 말자, 동등하려는
세대들의 아픔을……**

뭘 찍고 싶어서일까. 한시도 쉬지 않고 53년을 달려온 그가 렌즈에 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20



대 중반, 그림을 배우고자 일본으로 밀항했다. 50년대 후반, 6.25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을 그 무렵 다시 밀항해서 돌아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렌즈에 담긴 첫 작품이 용산역 뒷골목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국수를 먹는 가난한 대여섯 살의 소녀였다. 그런 후 그의 렌즈 속에는 가난한 이들만이 들어와 그들과 함께 ‘결인 아저씨’ 불리며 오직 사진만을,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짓궂은 군상들만을 담아왔다. 그는 그 가난한 이들의 무구한 해학과 웃음을, 무표정을 포착해 온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아프리카로 떠나 뭘 담으려 하는 걸까.

“텐트를 치고 사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며 찍고 싶은 거죠. 먹지도 못하고 삶의 근원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간다로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방랑

하는 그들의 마음에 감춰진 진실을 담아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인간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감춰진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해요. 굶어죽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방관하면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어느 유명한 사진가의 말을 기억해야 해요. 나의 사진은 나누는 것에 있어요. 그런 사진들 찍어서 뭘 하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술적 사진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자는 데 있어요. 보고 느낄 때 뭉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난 그 일을 위해 평생 카메라를 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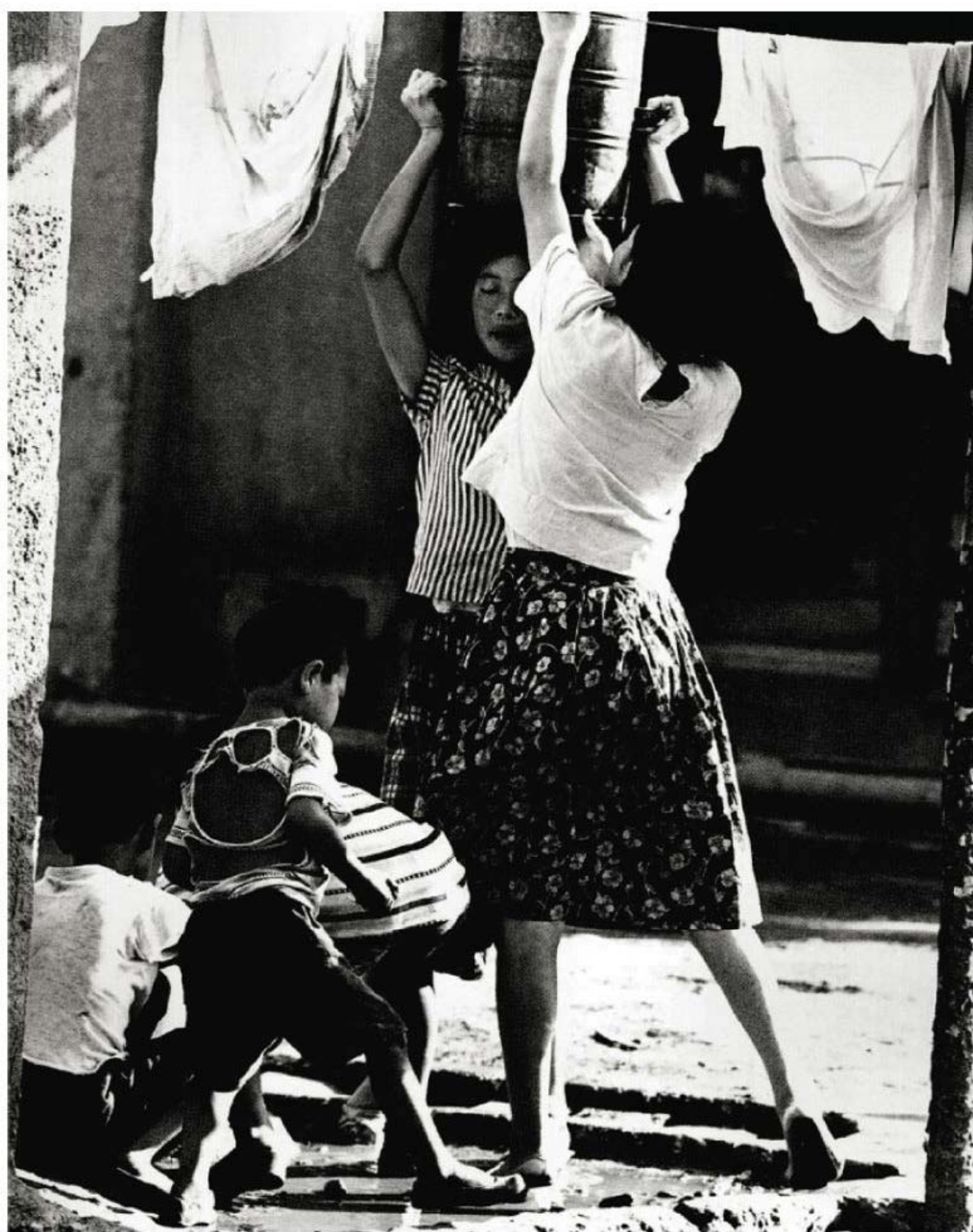
그는 경북 안동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 황해도 연안으로 가서 초등 학교를 보냈다. 7식구에 형제들 모두 주린 배를 채우기 급급해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는 홀연히 서울로 내려와 구걸도 하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젊은 날을 보냈다. 사진

을 찍기 시작할 무렵에도 그의 가난은 계속되었다. 가난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찍는 일은 그에게 의무와 고통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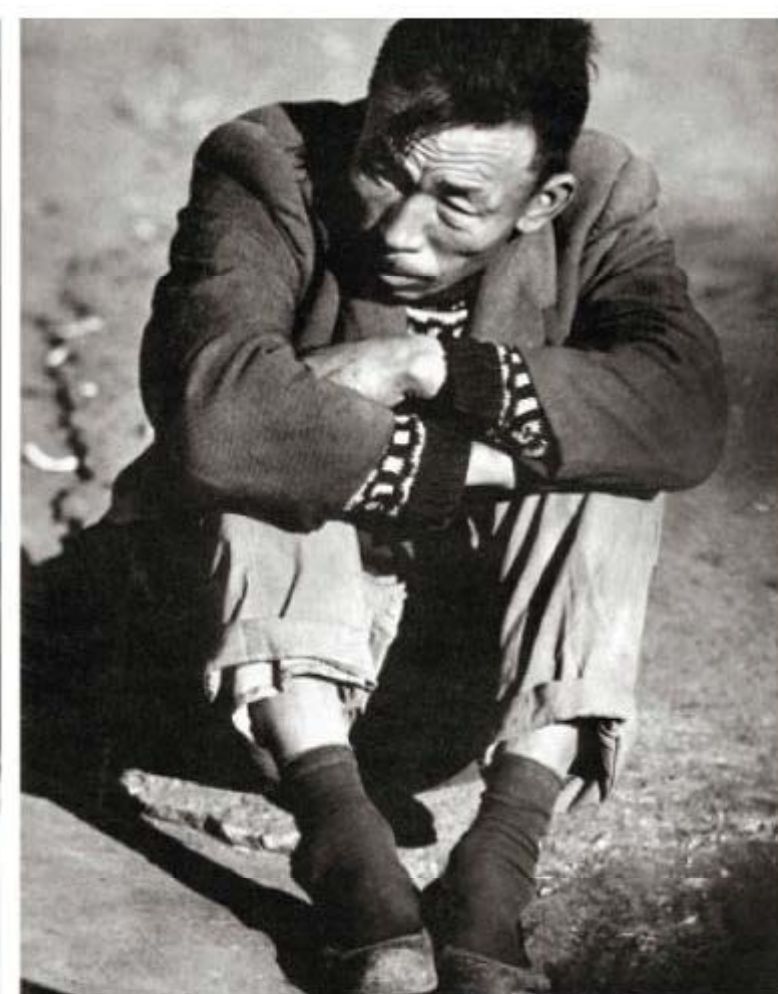
“두 끼만 먹어도 사람은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두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과라고 불리요. 한 끼만 먹으면 배고파서 살 수 없죠. 나는 그런 사람들의 진실을 담았죠. 배고팠던 시절, 더 배고픈 사람들을 찍는 일은 내게도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운명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찌겠어요.”

나누어 가지는 거,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

그의 사진 찍기는 먼저 외국에서 알아주었다. 영국의 <사진연감>에 ‘스타



최민식 사진 50년 대표선집 <인간(HUMAN)>



사진가'로 호평을 받기 시작해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 유수의 <사진연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여기 저기서 들어왔다. 그 무렵 딸이 그에게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판 사람은 마스크를 타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하잖아요! 왜 자꾸 응하세요? 난 아버지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는 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딸은 “피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는 사진을 신성한 신탁으로 여겼는데, 그 절대적인 애정을 그 딸에게는 나눠주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인터뷰하는 것조차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사진 찍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진 아픔의 감각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소외받은 이들을 나 자신과 함께 나누어 왔어요. 그들과 나는 섞여 짜인 직물과 같은 것이었으며, 내 삶 속에서 그들을 제외한 어떤 제스처로도 살고 싶지 않았죠. 나는 온몸의 힘으로 그들을 안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내 마음 속의 빈곤이 채워지고 안도감을 얻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0년 전, 1982년 독일 문화국 초청으로 독일에 갔을 때, 그는 그곳의 문화국 여성 부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인간(HUMAN)> 4집을 출간한 무렵이었다. 여성 부국장이 그에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클래식 중에서도 베토벤의 심포니를 좋아한다고 말했단다. 그러자 그에게 몇 집까지 낼 생각이냐고 물어서 적어도 10집까지는 내고 싶다고 그는 대답했다. 그러자 여성 부국장은 베토벤의

심포니 9집을 능가하는 <인간 심포니>라고 감동했단다. 그의 <인간(HUMAN)> 사진집은 현재 14집까지 나와 있다. 그가 꿈꾼 10집은 이미 14집을 출판하고 15집을 향해 가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사람)’은 연출하지 않은, 속사에 의한 순간 포착이다. 거기에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이 가능하다고 그는 믿고 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엿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본다.

“가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부패와 부정이 많아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보고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나누어 갖는 거,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있나요.” 🌈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무

지난 7월 7일, 스위스에 위치한 컨설팅 및 조사 기관인 코밸런스(Covalence)가 전 세계 18개 분야, 581개 유명 기업들의 '윤리 점수 성적표'를 공개했다. 성적은 언론이 보도한 긍정적인 뉴스 수에서 부정적인 뉴스 수를 빼는 방법으로 매겼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참으로 다양했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객정보 제공에서부터 사회 공헌, 폐기물 관리, 글로벌 네트워크, 노동기준, 부패방지 제도 등 경제, 환경, 사회적 인 측면을 골고루 평가한 성적이었다.

글 · 최미림 IGM(세계경영연구원) 주임연구원

〈전 세계 유명 기업 윤리경영 전체 순위 _ 2010년 2분기〉

전체 순위	회사	분야
1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기술(Technology)
2	인텔(Intel Corporation)	기술(Technology)
3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Inc.)	기술(Technology)
4	HSBC(HSBC Holdings)	은행(Banks)
5	유니레버(Unilever NV)	식음료(Food & Beverages)
6	마크 & 스펜서(Marks & Spencer Group)	소매(Retail)
7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onics Co.)	산업제품 (Industrial Goods & Service)
8	펩시 (Pepsico Inc.)	식음료(Food & Beverages)
9	제록스 (Xerox Corp.)	기술(Technology)
10	델 (Dell Inc.)	기술(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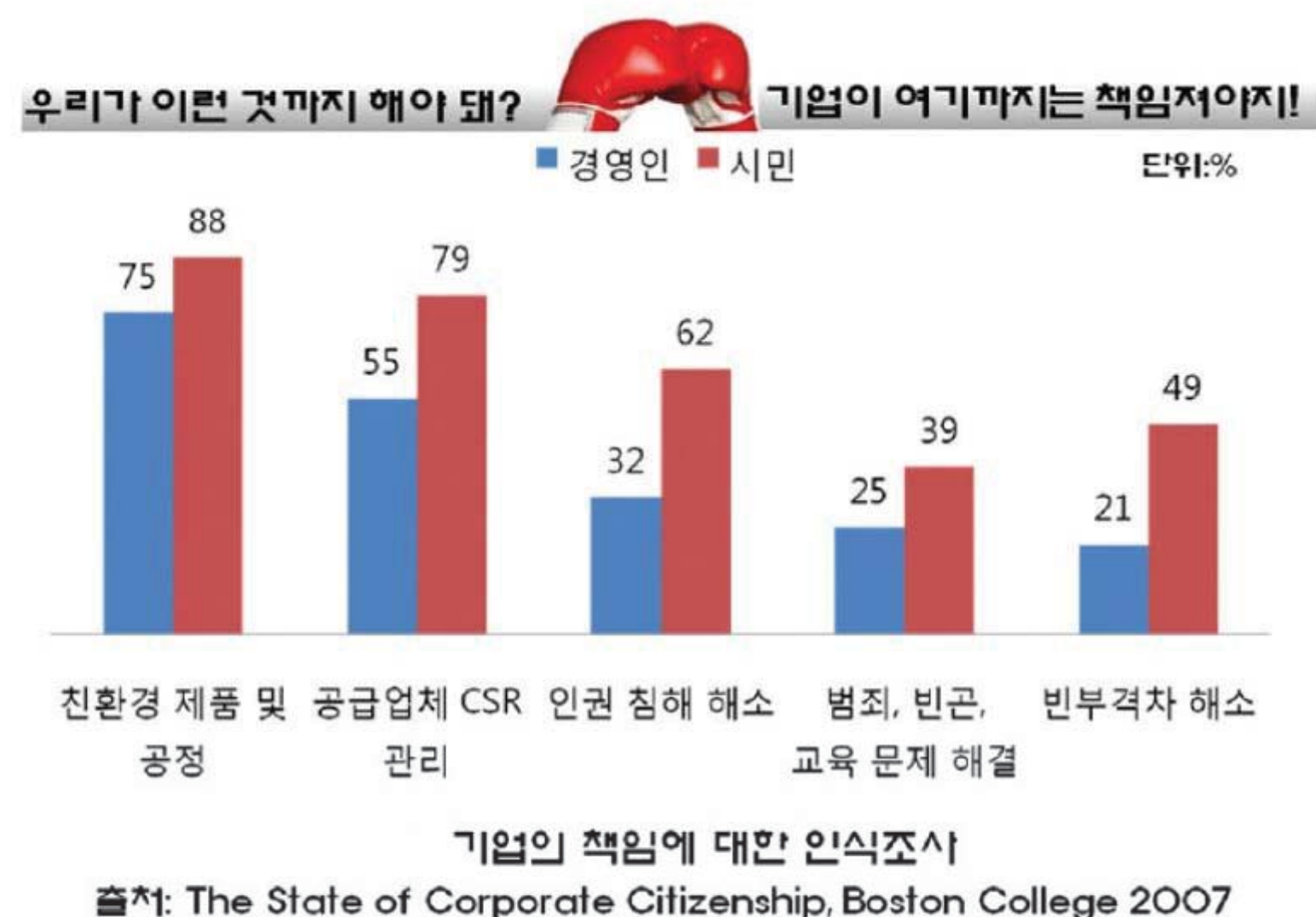
결국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윤리 경영은 단순히 금전거래가 깨끗하고,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는 기업에 그치는 차원이 아니다. 윤리 경영(moral management)의 적법성 여부만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 사회통념까지 감안하여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경영방식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를 기업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서는 부담스럽기만 한 윤리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음 3가지 질문으로 윤리 경영과 관련된 궁금증을 없애보자.

기업을 윤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까?

어떠한 논의에 앞서 기업과 윤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먼저 기업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다. 다음으로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다. 그렇다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잣대가 돼야 한다. 더구나 윤리의 적용 대상 역시 사람이지만 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잣대는 물론 환경적 잣대, 사회적 잣대, 윤리적 잣대를 기업을 향해 들이댄다. 도대체 왜 사람도 아닌 기업을 윤리적 기준으로 평가하며, 윤리성을 강요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07년 보스턴 대학(Boston College)에서 실시한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환경제품 생산 및 공정, 공급업체의 사회적 책임 관리, 인권 침해 해소,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빈부 격차 해소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에 대해 기업

과 소비자가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기업은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소비자는 기업이 여기까지는 책임져야 한다고 답한다. 이는 시대가 변해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 1966년 울산 공업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뿜어나가는 그날,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도래한다.” 1980년대 산업의 성장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업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기만을 기대했다. 환경이 망가지거나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였다는 이유를 대면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기업은 경제는 물론 폐놀 사건, 비정규직, 빈곤, 비만 등 환경 및 사회문제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요구당하고 있다.

윤리경영학계의 대가인 B.A. Carroll은 ‘기업 수행의 3차원 개념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의 책임을 경제적 책임(1단계), 환경적 책임(2단계), 윤리적 책임(3단계), 자선적 책임(4단계)으로 나눈다. 경제적인 책임을 넘어서 2, 3, 4단계에 해당하는 환경, 윤리, 자선적 책임까지 지는 윤리 경영은 기업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만이 살아남아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은 기업에게 부담이기만 할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베트남의 작은 직물업체인 ‘Ho Guam Garment’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Ho Guam Garment는 1992년 베트남의 작은 도시에서 옷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창립 후 10년째 신통치 않았던 회사의 매출이 2002년부터 부쩍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전체 생산량 중

95%를 월마트(WalMart), 시어스(Sears), 타겟(Target)과 같은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수출하게 됐다. 성공 요인은 다름 아닌 윤리 경영이었다. 이 기업은 2002년부터 'Code of Conduct' 라는 규칙을 제정해 회사 내부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먼저 챙겼다. 그리고 이를 미국 수입업자에게 강조하며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중소기업, 그것도 베트남의 중소기업에 윤리 경영을 기대하는 고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윤리 경영'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은 해외 협력업체를 고를 때에도 윤리 경영을 살피고 있었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 지역에서 윤리 경영에 신경을 쓴 거의 유일한 기업이었던 Ho Guam Garment는 윤리 경영 덕분에 차별성을 갖춘 매력적인 협력업체로 떠올랐다. 이 기업에게 윤리경영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셈이다.

어떻게 윤리경영을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윤리 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 또 잘만 대응하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윤리 경영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까? 이

에 대한 대답은 앞서 코밸런스가 조사한 기업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IBM의 윤리 경영 활동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IBM은 최고의 자산인 우수 인력, 첨단 기술력 등을 교육, 문화, 사회지원, 예술, 환경 각 분야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건실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BM은 교육과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 환원에 가장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출처: 한국 IBM 홈페이지)

많은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를 쓴다. 무조건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해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윤리 경영에 대해 기업의 돈과 인력을 가치 없이 그저 쓰기만 하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윤리 경영을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어 기업의 수익성으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인 수익성과 사회의 관심인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IBM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IBM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해주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IBM 자체의 우수한 인력과 자재를 사용하기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윤리 경영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IB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년에 한번 선거 때마다 선택을 받게 되는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검은 뒷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군대에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까지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 모두 철저히 점검한다. 이에 대해 정치인들은 절대 볼멘소리를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통과해야만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 우리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눈에 띄기 쉬운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이들뿐 아니라 기업들 즉 법인에게도 그 기준을 철저히 그리고 꼼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코밸런스(Covalence)의 윤리경영 관련 기업 순위에서 LG는 69위, 현대자동차는 129위, 삼성은 134위, 포스코는 267위를 기록했다. 바야흐로 소비자의 시대,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 환경, 사회, 윤리적 잣대까지 아우른 윤리 경영에 보다 신경을 기울일 때다. 🌍





‘선비문화’의 그 고매한 정신을 찾아서

선비는 학문(學問)을 통해 스스로 인격을 다듬고 학식을 고루 갖춘 지성인을 뜻하는 말이니,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불멸의 아이콘이요,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셈이다.

글 · 박석홍 소수서원 학예연구원 사진 · 남정우 작가 사진 제공 · 순흥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역사 가운데 선비사상 살펴보기

까마득한 옛날 성인께서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어린 학생들이 건강히 잘 자라게끔 그 정신적인 뿌리를 북돋아주며(以培其根 이배기근), 그들의 장래 역시 잘 되도록 가지를 발달케 하였다(以達其枝 이달기지)고 「소학집주」는 전한다. 여기서 따 온 말이 ‘배달(培達)’이란 말이니, 최남

선 선생은 우리 민족을 일컬어 ‘배달겨레’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 교육열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심지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결코 우연에서 비롯된 말은 아닌 것 같다.

문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군장사회 때에는 왕을 하늘과 소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

통하는 우두머리라고 해서 간(干, Khan) 이라고 불렀고, 백성 가운데 지식을 갖춘 선비를 두고 사(士, 선비)라고 불렀다.

선비사상의 뿌리는 고조선 때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겨 이화 세계를 추구했던 '홍익인간 정신'에서 비롯되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는 '화랑도 정신'으로, 고려시대에는 '장인정신'으로, 조선시대에는 주자성리학을 그 근간으로 한 '선비정신'으로 시대를 달리하면서 선비사상의 역사를 면면이 이어왔다.

전통문화 가운데 선비정신 찾아보기

선비는 효(孝)와 충(忠)을 스스로 가치 덕목으로 삼아 선비정신을 철저히 실천해 나왔다. 학문을 통해 익힌 지식과 닦은 인격을 바탕으로 항상 나보다는 남을, 내 집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으며, 부모에게는 효도로, 나라에는 충성으로 보답함을 당연지사 여겼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 민족정신이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정신이 승화된 고조선 사회의 이타(利他)의식인 '홍익인간 정신(弘益人間精神)'이 선비사상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은 자식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효도와 충성으로 이상을 추구했던 화랑도정신(花郎道精神)으로 배태(胚胎)된 선비정신은 삼국통일의 근간(根幹)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불교사회의 새로운 물질로도 번져 널리 원만하여 두루 막힘없이 융통하라는 원융무애(圓融無碍)의 화엄사상으로도 꽃피운 바 있다.



삼한을 통일한 고려왕조에 들어와서는 귀족사회의 상징물인 고려 '상감청자'를 빚어내는 장인정신(匠人精神)이 선비사상의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 회현 안향(安珦) 선생은 선비정신을 하나의 학설로 체계화시킨 주자학(성리학)을 도입하여 국기질서회복과 부국안민의 치도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고려왕조는 외무내환으로 나라가 극심히 혼란스러워 주자학이 제대로 그 뿌리를 공고히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왕조 교체의 격변기에 들어와서 선비정신은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다. 선비들은 경서(經書)를 학문의 문호로 삼아 사제지간(師弟之間)에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터전을 마련하여 학문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인격으로 예의와 엄치, 깨끗함과 올바른 신조를 삼는 청빈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비는 학문을 통해 몸(행실)과 맘(인격)을 닦아 훌륭한 인품을 갖춘 자를 말한다. 『주역』_「곤괘」편에 나오는 '경이직내의이방외(敬而直內 義而方外)'를 풀이하면, '겉과 속이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선달(先達)이요, 참선비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겉만 익고 속이 안 익으면 건방(乾方)이 들어 겉 다르고 속 다른 인물이 되므로 건달(乾達)밖에 되지 못한다'고 선비에 대해 정의하였다.

불의(不義)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소아(小我)를 버릴 줄 알았던 희생정신과 명분(名分)에 어긋난 짓을 할 경우 자타(自他) 구분 없이 용납하지 않았던 절

의(節義)를 앞세워 대의명분(大義名分)에 죽고 사는 삶을 산 분들이 바로 선비들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사상적 기저가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사적 사조를 그때 그때마다 받아들이다 보니 조선 말엽에는 선비정신이 대동단결이라는 두레정신으로 표출되었고, 현대사에까지도 그 사상의 흔적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새마을 정신으로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의 고장 「영주」둘러보기

영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며 353년간 4천여 명의 올곧은 선비들을 배출한 「소수서원」이 자리 잡은 태고적 선비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선비의 고장이다.

단종복위 실패로 혁파되어 227년간 무서리를 맞고 역사의 자취에서 사라졌다가 숙종 9년에 명예를 회복한 「절의지향(節義之鄉)」 순흥(順興) 고을에는 그때 희생되었던 선비들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금성대군신단(錦城大君神壇)이 남아 있다.

또한 이곳은 주자학(朱子學)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겨레의 불을 밝힌 민족의 참스승이신 회헌(晦軒) 안향(安珦) 선생의 연고지이며, 조선왕조를 세우고 기틀을 닦은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선생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단종복위(端宗復位) 실패로 당시 혁파(革罷)될 때 불타버린 선비촌(儒士村)이 재현되어 있어 한류(韓流)의 붐을 타고 한(韓)문화 체험장으로 외국인들에게 특히 각광 받고 있으며,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또한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인성교육(人性教育)의 장으로도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



선비문화 체험 프로그램 _ 성인식



서원 스테이 _ 전통 떡 만들기 체험 행사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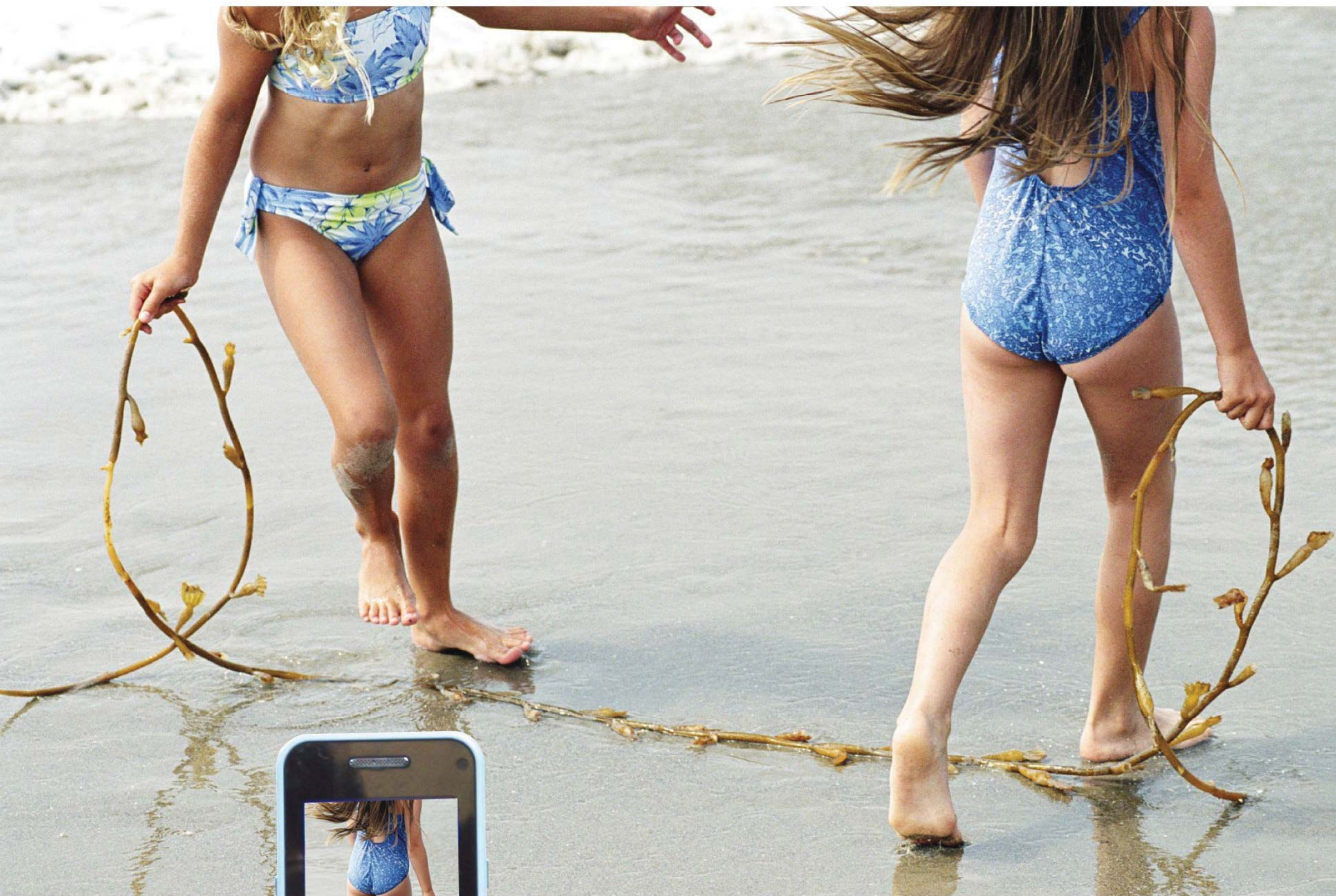
선비문화 체험 _ 서원 스테이 이용

경상북도과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선비촌」에서 주관하는 본 행사는 주말을 이용하는 '맞춤식 프로그램'과 주중을 이용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가족 단위 또는 그룹 모임에서는 주말을, 학생 단체와 기관 단위에서는 주중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편이다. 서원 스테이에 입소하게 되면, 등록과 함께 유건, 유복, 유화로 복장을 통일하여 서원 경내에서 입소식을 갖게 되며, 「문성공 묘」에서 성헌 참배의식을 시작으로 '강학당'에서 백록동규·사물잡·주문공심훈 등의 경독례를 거치면서 서원에 담긴 유교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된다. 이어 전통 떡 만들기, 전통예절(차례·제례·조문) 체험, 부모자식 간·배우자 상호 간에 쌓인 담을 허무는 마음읽기 시간, 도자기와 서예 실습 등 한옥 체험뿐 아니라, 야외수업으로 총절의 산실인 금성대군신단, 성지 순례 그리고 죽계9곡에 얹힌 문학 기행, 호국사찰 부석사 탐방 등 빽빽한 일정들로 이뤄져 있다. 그밖에도 인근에 있는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은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기관단체 임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자아실현, 동료애·가족애 부활, 나라사랑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선비촌 서원 스테이 관련 : 054-638-6444 • 선비문화수련원 관련 : 054-631-9888

인근 체험 볼거리 • 소수서원(사적 제55호) • 선비촌(선비문화 및 한류문화 체험) • 선비문화수련원(인성교육 및 한옥 체험) • 소수박물관(유교/성리학 종합박물관)

기타 주변 볼거리 • 금성대군신단(사적 제191호) • 국립공원 「소백산」 • 국보 최다 보유, 호국사찰 「부석사」 • 무섬(水島里) 한옥 전통마을



여름철 휴양지

‘물카’ 피해 대처법!!!

많은 사람들이 해변, 강가, 야외수영장 등 휴양지로 물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를 망치게 하는 불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가 도촬 또는 물카입니다. 최근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폰 등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물카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카를 피하고 또 물카의 가해자로 의심받지 않으면서 즐겁게 휴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강병훈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몰카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몰카를 찍는 사람들 중에는 큰 죄의식 없이 호기심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몰카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몰카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몰카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① 카메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입니다. 몰카를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를 고려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몰카 행위가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실현하여 완성한 점)에 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 사진을 찍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찍기 위해 6회 정도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의 고장 또는 배터리 충전 부족 등의 이유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여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아무런 영상 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한 경우, 미수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막으려면?

해수욕장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는 몰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휴양지에서는 디지털카메라나 카메라폰 휴대를 금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몰카를 사전에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몰카 피해의 의심이 드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의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체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잡는 것 못지않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사진을 삭제하려 한다면 카메라를 빼앗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권한이 없지만, 피의자가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카메라를 빼앗는 방법 밖에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허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될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수치심과 고통을 당할 것이 자명하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몰카 가해자로 오해 받지 않으려면?

휴양지에서 순수하게 사진을 찍는 행위가 때로는 몰카 촬영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의심을 받을 만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영복 차림이 많은 곳에서는 몰카에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나 핸드폰을 조작하는 행위를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리고 사진촬영을 허락한 사람을 향해서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에도 몰카 가해자로 오인 받을 경우에는 촬영 사진을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불순한 의도로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야만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걷기여행, 공정여행……. 그 다음을 말한다, 지구를 위하여 자연의 속살을 탐구하는 <사계절 생태여행>



‘풍경이 아름다운 건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이야.’ 자못 도발적인 메시지를 부제처럼 던지고 시작하는 이 책은 월간 <자연과생태>에서 오랫동안 자연탐사여행을 기획, 취재해 온 저자가 썼다. 환경선진국들에서 이미 중요한 여행 테마로 자리 잡은 생태여행(eco-tourism)은 대자연이 품고 있는 생물자원들, 즉 꽃과 나무, 작은 곤충들, 새와 야생동물의 흔적을 배우며 생태계 보전의 가치를 깨닫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감성과 지식을 살피우는 여행이다.

글 · 월간 <자연과생태> 편집부 사진 · 조영권, 월간 <자연과생태> 편집장

화두는 자못 묵직하지만, 생태여행은 생물과 우리 자연에 관한 기초 지식 없이 어디서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여행 중에 마음을 빼앗긴 꽃 한 송이, 나비 한 마리를 발견하고 카메라에 담는 순간에 생태여행은 이미 시작된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자연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여행자들은 대부분 경험하는데, 이렇게 샘솟는 궁금증을 모른 채하지 않고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자연도감을 뒤적여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생태여행가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이라면, 가족 피서를 겸해 이런 곳, 이런 여행은 어떨까?

철새 연구자들의 행복한 유배지 : 홍도 · 흑산도

“목포에서 쾌속선 타고 2시간. 높은 파도를 헤쳐 차례로 나타나는 홍도와 흑산도는 봄가을 우리나라를 지나는 나그네새들이 우수수 내려앉아 지친 날개를 접고 체력을 보충하는 쉼터다. 텃새는 물론이고 여름철새, 겨울철새, 길 잃은 새까지 우리나라에 기록된 새 500여 종 가운데 약 70퍼센트를 두 섬에서 만날 수 있다.”

새들은 대부분 철새다. 새 중에 특정 지역에 머물며 번식하고 생활하는 텃새는 15퍼센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계절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한다. 텃새라고 해도 대부분 이동 본능을 타고난 새들이라 ‘철새연구’란 사실상 광범위한 새 연구를 통칭한다. 새들은 국가 간, 대륙 간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데는 국제적인 정보 교류가 필수다. 날아가는 새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파악할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새들의 몸에 가락지를 달고 그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가락지를 단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면 잘 관찰했다가 철새연구센터에 연락하자. 가락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홍도나 흑산도에 있는 철새연구센터를 방문하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동하는 철새가 많은 철에는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가족이 직접 새들에게 가락지를 달아 날려 보내는 체험도 할 수 있으므로 꼭 도전해 보자. 생물을 품에 안아 그 온기를 느껴보는 것만큼 좋은 생태여행은 없다.



사람 없는 계곡에 천국을 짓다 : 인제 아침가리골

“사람이 살지 않는 자연에는 누가 살까? 우리 땅에서 오지가 사라진 지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 발길이 가장 적게 닿은 곳을 택하라면 강원도 인제군 아침가리골을 첫손에 꼽는다. 물과 숲, 공기의 삼박자가 자연의 속도 그대로 흘러가는 계곡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냉수성 물고기들과 처음 물에 오르고 있는 계곡산 개구리를 만났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참살이를 지향하는 우리네 삶처럼, 수많은 선택과 버림을 통해 그곳에 머물렀을 그들의 삶은 각별하다.”

한여름에 사람 없는 산간 계곡만큼 멋진 피서지가 있을까? 한낮에도 수온이 20도를 넘을락 말락 하는 아침가리골 같은 곳이라면 사라져 가는 1급수 토종 물고기와 개구리들, 다양한 물 속 곤충과 수변식물들을 관찰하는 자연학습장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작은 족대 하나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엄마는 물가에 가두리 어항을 만들어 보자. 열목어, 금강모치, 쉬리, 미유기, 새코미꾸리……. 이 책에 사진이 실린 물고기들만 찾아도 여름방학 숙제가 푹푹! 물이 워낙 맑아 물속 관찰도 가능하다. 아이 키를 넘지 않는 여울이나 소에 물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쉬리 같은 날쌔돌이들이 떼 지어 헤엄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해 있을 때 한 번 생명이 깨어난다 : 강화도 갯벌

“하루에 두 번 바다가 되고 땅이 되는 공간, 갯벌은 신비롭다. 바닷물이 들고남에 따라 갯벌생물들은 번잡하고 고요한 삶을 반복한다. 미세한 유기물 막에 감싸여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갯벌은 수많은 생물들의 잔치상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물이 빠지면 긴 시간 굴 속에 숨어 있던 게들은 밖으로 걸어 나와 부지런히 흙에서 영양분을 걸러먹고 짝을 찾는다.”

갯벌이 많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생태 공간이다. 서해를 찾으면 언제나 보는 갯벌이지만 그 속에서 생물을 관찰하기는 사막에서 비늘 찾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은 확실히 작고 예민해 그 존재를 눈치 챌 틈도 없이 쏙삭 잘도 숨어 버린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딱 1분만 버텨 보라. 참을성 없는 녀석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고 튀어나와 갯벌은 다시 생물 천지가 된다. 종류도 다양한 게들과 갯지렁이들, 배지느러미를 통겨 갯벌 위를 뛰어다니는 말뚝망둥어 등 이들이 하는 짓을 구경하는 재미도 크지만, 뽕 바닥에 난 어지러운 무늬와 구멍 등의 흔적을 통해 작은 생물들의 삶을 추적하는 맛도 들이면 좋다. 🌊

ACRC News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대사 주재로 옴부즈만 워크숍 열려

라르스 바리외(Lars Vargo) 주한 스웨덴 대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초청으로 7월 19일 권익위 청사에서 박인제 사무처장을 방문하고, 권익위 내 학습동아리인 '선진 옴부즈만 연구회' (고문 이재충 상임위원)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웨덴 옴부즈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2006년 한국에 부임한 라르스 바리외 대사는 이날 권익위 직원들에게 스웨덴 옴부즈만의 정치·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한편, 옴부즈만은 특정 제도 도입보다 옴부즈만이라는 개념과 인식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에 각인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 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문제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권익위 직원들을 독려했다.

향후 권익위는 옴부즈만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스웨덴 옴부즈만과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2010 기업윤리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8일부터 이틀에 걸쳐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윤리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공기업,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윤리경영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윤리경영 관련 특강, 정부의 반부패·윤리경영 정책 소개, 분야별 우수사례 공유 그리고 워크숍 참석자들의 마음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ISO26000 국내 간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ISO26000 제8차 코펜하겐 총회 결과 보고와 ISO26000에 대한 개요 및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2일째 일정에는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윤리경영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본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렴 옴부즈만 제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상생협력', 한국전력공사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 한미파슨스의 '고객만족경영', SAS Korea의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와 같은 5개 기업의 윤리경영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1박 2일의 짧지만 알찬 일정을 통해 워크숍 전 참석자들은 윤리경영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및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기업윤리 관련 역량 또한 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강원도 정선 개미들마을과 '1사1촌' 맺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강원도 이동신문고 행사 때 마을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면서 인연을 맺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개미들마을과 6월 9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최법순 마을대표가 권익위에 자매결연을 제안한 것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며 이루어진 것으로, 행사에는 이재오 전 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부회장, 권익위 직원 30여 명과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익위는 농번기시 일손을 돕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지원하는 등 개미들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기로 했으며, 직원들은 자매결연 행사 후 고추모종 지지대 세우기, 찰옥수수밭 풀 뽑기 등 농사준비를 거들었다. 한편, 권익위 직원 20여 명은 7월 14일 감자수확철을 맞은 개미들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같이 감자를 캐고, 현장에서 감자를 구매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펼쳤다.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App' 보급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8일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에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갖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 국민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고, 양 기관은 삼성전자의 IT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신문고 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는 민원 신청, 민원·정책Q&A 검색, 110콜센터 전화 자동연결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T store 내 삼성전자 앱스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전국 시도교육청, 14개 주요 공공기관 등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 제안·정책 토론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편집 후기

이번 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9월 10일)

Quiz+Quiz

	1		2	7
3		5		
6				
		8		

가로

- 세계적인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의 작품 모태이자 중심이 된 지역, 영상문화의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의 제2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기획된 국제 영화제가 펼쳐지는 한국 영화의 발상지
- , 전남 담양군에서 남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면양정, 담양소쇄원, 담양호, 금성산성 등이 주변명소로 위치해 있다.
-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하던 산성의 서쪽에 만들어 놓은 높은 대, 경기도 수원화성의 첫 관문, 화성장대, 일명 □□□라고 불리는 화성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지휘본부로서, 전투나 군사훈련을 총 지휘하던 곳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나 다음 없다.

세로

- 권익위는 청소년들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제3회 전국 고등학생 □□논술 경시대회」와 일반국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2회 □□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서원,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선비촌이 자리해 있다.
- 국토해양부(전 건교부)가 분양가 43억 원 상당 토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한 후, 갑자기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20년간 개발과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된 □□□□ 대불 산업단지, 최근 권익위의 현장조정으로 전남 □□ □□ 산업단지의 개발 제한 예정
-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갯머리

지난호 퀴즈 정답

	1	독		2	납	7	채
3	4	기	일	5	제		근
		라			부		담
		성	6	괘	도	6	
				8	이	과	인

- ※ 낱말 퀴즈의 정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서민생활과 동떨어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어렵고 소외된 영농·어업종사자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를 비롯해, 갈수록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퇴색되고 반인륜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효도수당제나 효행 표창자를 격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수빈 씨 (전라남도 곡성군)

◎ 언제부터인가 '청렴'이란 단어가 무척 익숙해졌습니다. 돌아켜보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렴'이란 용어 자체는 말 그대로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좋은 한자어이지만 '이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진짜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은 바른 사회가 아닐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전 국민이 청렴한 세상,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른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정선 씨 (인천광역시 부평구)

◎ 행정심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행정심판 다시보기' 코너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임시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사 속의 재결로 인해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선례가 생긴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이여운 씨 (대구광역시 동구)

◎ 파라과이에서 2년 동안 머무르다 귀국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동포 분들을 뵈었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똑같은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역만리에 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경 씨 (경기도 양평군)

◎ 평소에 펜션이나 휴양지에 머물 때 혹시 차량이나 귀중품이 도난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생활법률 110을 통해 펜션 운영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종범 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심판으로 더 행복해집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해 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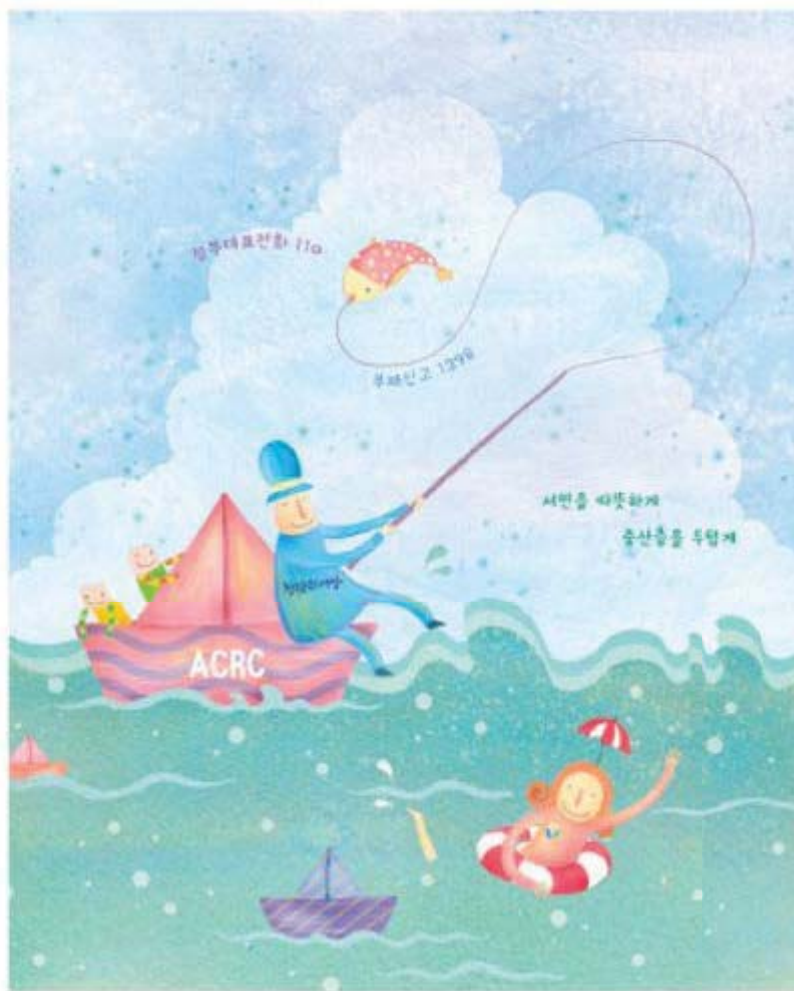
청구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 가능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 또는 처분청에서 서식을 교부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

소관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억울함이 없는 나라,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표지 일러스트 · 함서정

더위를 피하려 손에 손을 마주잡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계절.....
 청록빛 산에 올라 말간 계곡물에 발도
 살포시 담가보고,
 하이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
 한복판을 온힘을 다해 누벼도 보고,
 세상사를 초월한 강태공처럼 느른
 강가에 앉아 모처럼의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도 전 국민의
 파아란 꿈을 위한 청렴 땀방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